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曹 点 煥

初等學校 特技・敵性 教育活動의 運營 實態와

그 改善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Operational Reality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and Its Improvement

1999年 6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朴 聖 植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曹 点 煥

初等學校 特技・敵性 教育活動의 運營 實態와  
그 改善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Operational Reality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and Its Improvement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 年 6 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朴 聖 植



朴聖植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9年 6 月

審 查 委 員 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 目 次

|                            |    |
|----------------------------|----|
| I. 緒論 .....                | 1  |
| 1. 研究의 必要性 .....           | 1  |
| 2. 研究의 目的 및 內容 .....       | 2  |
| 3. 研究의 方法 .....            | 3  |
| 4. 研究의 制限點 .....           | 5  |
| 5. 用語의 定義 .....            | 5  |
| II. 理論的 背景 .....           | 6  |
| 1.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意義 .....    | 6  |
| 2.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成立背景 .....  | 11 |
| 3.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內容 .....    | 12 |
| 4.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運營 實態 ..... | 27 |
| 5. 先行研究의 考察 .....          | 32 |



|                                              |    |
|----------------------------------------------|----|
| Ⅲ. 資料分析 및 解釋 .....                           | 41 |
| 1. 特技・適性 教育活動에 대한 認識 .....                   | 41 |
| 2.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私教育費 負擔과 教育內容에 대한<br>認識 ..... | 50 |
| 3.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問題點과 改善에 대한 認識 .....          | 56 |
| 4. 特技・適性 教育活動에 대한 興味와 欲求 .....               | 62 |
| Ⅳ. 要約, 結論 및 提言 .....                         | 63 |
| 1. 要約 .....                                  | 63 |
| 2. 結論 .....                                  | 66 |
| 3. 提言 .....                                  | 67 |
| 參考文獻 .....                                   | 68 |
| Abstract .....                               | 71 |
| 附    錄 .....                                 | 75 |



## 表 目 次

|                               |    |
|-------------------------------|----|
| <표 1> 응답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    | 3  |
| <표 2> 설문지 문항 구성 영역 .....      | 4  |
| <표 3> 특기·적성 교육활동 현황 .....     | 16 |
| <표 4> 연간 사교육비 규모와 증가율 .....   | 21 |
| <표 5> 과외가구 비율과 월평균 과외비 .....  | 22 |
| <표 6> 월평균 교육비 부담율 .....       | 23 |
| <표 7> 특기·적성 교육활동 수강과목 .....   | 29 |
| <표 8> 과목별 수강율 .....           | 30 |
| <표 9> 강사 유형 .....             | 30 |
| <표 10> 외부강사 의존율 .....         | 31 |
| <표 11> 특기·적성 교육활동 참여 여부 ..... | 41 |
| <표 12> 특기·적성 교육활동 부서 .....    | 43 |
| <표 13> 특기·적성 교육활동 장소 .....    | 44 |
| <표 14> 특기·적성 교육활동 참여 희망 ..... | 45 |
| <표 15> 소질·적성 계발에 도움 정도 .....  | 46 |



|                                       |    |
|---------------------------------------|----|
| <표 16> 특기·적성 교육활동 선택의 적정성 .....       | 47 |
| <표 17>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지도자 선호 .....       | 48 |
| <표 18> 특기·적성 활동 적정 주당 시간 수 .....      | 49 |
| <표 19> 사교육비 부담에 도움 여부 .....           | 50 |
| <표 20>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부담 .....      | 51 |
| <표 21>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선호 분야 .....        | 52 |
| <표 22>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설학원과의 내용 비교 ..... | 53 |
| <표 23> 특기·적성 교육활동시 사용했던 자료 .....      | 54 |
| <표 24>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 .....       | 56 |
| <표 25> 특기·적성 활동 운영의 활성화 정도 .....      | 57 |
| <표 26> 현행 특기·적성 활동의 개선점 .....         | 58 |
| <표 27>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개선의 필요성 .....      | 60 |
| <표 28> 특기·적성 활동 참여했을 때 어려웠던 점 .....   | 61 |
| <표 29>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만족도 .....          | 62 |



## 그림目次

|                                    |    |
|------------------------------------|----|
| <그림 1> 교육비의 분류 .....               | 18 |
| <그림 2>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사교육비 경감효과 ..... | 26 |



# I. 緒 論

## 1. 研究의 必要性

최근까지 학교 밖에서는 과외 열풍이 교육계를 흔들었다. 학교 교육은 형식에 치우치고 사교육비의 부담이 증가하여 가정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야기 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망국병을 치료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유인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1995년 교육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학원중심 교육에서 학교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게 하며,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학교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학교로 끌어들였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큰 몫을 하게되어 가시적인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교육의 질적 개선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후에 학생들의 특기를 신장키시며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원 수준의 교육 시설, 양질의 강사 확보,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다인수 학생의 학급 조직 등이 특기·적성 교육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과후에 학생들이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로 바람직하게 추진되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보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 2. 研究의 目的 및 內容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세 집단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실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목적과 수강 과목 선택 기준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문제점과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학생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배경변인(학생, 교사, 학부모)에 따라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목적과 수강과목 선택기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셋째, 배경변인에 따라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넷째, 배경변인에 따라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문제점과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다섯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학생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지 알아본다.



### 3. 研究의 方法

#### 1) 研究의 對象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15개 초등학교를 전반적인 학교환경에 따라 분류한 가 급지(도시), 나 급지(읍, 면단위)별로 교사, 학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학생용 400부중에서 390부(회수율 97.5%) 교사용은 400부중 320부(회수율 80.0%) 학부모용은 400부중 312부(회수율 78.0%)가 회수되었다. 분석에 이용된 응답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응답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 구분  | 변인별  |       | 빈도  | %     |
|-----|------|-------|-----|-------|
| 학생  | 성별   | 남     | 180 | 46.15 |
|     |      | 여     | 210 | 53.85 |
|     | 거주지  | 시     | 221 | 56.67 |
|     |      | 읍.면   | 169 | 43.33 |
| 교사  | 성별   | 남     | 142 | 44.37 |
|     |      | 여     | 178 | 55.63 |
|     | 경력   | 10년미만 | 95  | 29.69 |
|     |      | 10년이상 | 225 | 70.31 |
|     | 거주지  | 시     | 196 | 61.25 |
|     |      | 읍.면   | 124 | 38.75 |
| 학부모 | 관계   | 부     | 106 | 33.97 |
|     |      | 모     | 206 | 66.03 |
|     | 거주지  | 시     | 153 | 49.04 |
|     |      | 읍.면   | 159 | 50.96 |
|     | 생활수준 | 상     | 3   | 0.96  |
|     |      | 중     | 245 | 78.52 |
|     |      | 하     | 64  | 20.52 |

#### 2) 研究의 道具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도구는 선행 연구와 참고문헌을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조사도구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배경변인에 관한 문항과 특기 적성 교



육 활동의 인식에는 참여도, 소질 적성 계발 도움 정도 강사 선택, 요구 시간에 관한 문항과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내용, 자료사용, 필요성과 관련된 문항,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활성화 정도, 개선점과 문제점에 관련된 문항, 흥미와 욕구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4개 영역에 총 20개 정도의 문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정경영 석사학위논문”<sup>1)</sup>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조사 도구의 문항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 )안은 문항번호

| 영역                 | 내용                                                                                 | 학생                                    | 교사                                    | 학부모                               |
|--------------------|------------------------------------------------------------------------------------|---------------------------------------|---------------------------------------|-----------------------------------|
|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인식     |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참여(여부,부서,장소,희망)<br>소질 적성 계발 도움 정도<br>특기 적성 강사 선택의 적정성<br>특기 적성 적정 요구 시간 | 4(1,2,4,5)<br>1(3)<br>3(7,8)<br>1(10) | 2(1,2)<br><br>2(6,7)<br>1(10)         | 2(1,3)<br>1(2)<br>2(6,7)<br>1(10) |
|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내용 인식  | 특기 적성 교육활동 사교육비 부담경감<br>특기 적성 교육활동 교육내용<br>특기 적성 자료 사용<br>특기 적성 교육활동 대상            | <br>2(6,9)<br><br>1(12)               | <br>2(4,9)<br>2(5,8)<br>1(3)<br>1(12) | <br>2(4,9)<br>2(5,8)<br><br>1(12) |
|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인식     |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활성화 정도<br>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개선점과 개선분야<br>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문제점                     | 1(11)<br>2(13,14)<br>1(15)            | 1(11)<br>2(13,14)                     | 1(11)<br>2(13,14)                 |
|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흥미와 욕구 |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흥미와 욕구                                                                 | 1(16)                                 |                                       |                                   |

1) 정경영,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p.16-17.



### 3) 資料의 處理

본 연구에서 표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을 사용하여 백분율(%)과  $\chi^2$  검증을 실시하였고, 유의도 5% 수준에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 4. 研究의 制限點

첫째, 연구대상이 경기도지역에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설문지 제작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제작하였다.

### 5. 用語의 定義

특기·적성 교육활동 : 학교에서 정규수업 활동 외에 실시하는 학생의 재능계발, 개성신장, 건전한 취미 활동과 기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II.理論的 背景

### 1.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意義

우리 나라에서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개념은 그 근원을 특별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별활동이란 용어는 종래 '과외활동'이라고 불리어 오던 학생활동에 대한 호칭으로서 8.15 광복 후 처음으로 제정한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에 생활영역에서 규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활동을 '학생들의 과외활동'으로 규정하던 정의는 그리 오래 사용되지 못했다. 1954년에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목적적인 교육활동 중에서 교과활동 또는 교과과정을 제외한 기타 모든 활동 또는 과정"<sup>2)</sup>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 특별활동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일반적 정의이다. "김명례는 특별활동을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과학습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 즉 학생의 개성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수기능 그리고 민주적 생활태도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회, 클럽활동, 학교행사 등을 통해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sup>

"우리 나라에서 특별활동이란 용어가 공식 문서상에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 특별활동이란 용어가 사용되어진 후 부터였다."<sup>4)</sup>

1945년 이후 1954년도까지 교수요목이나 교과, 학과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해석한 당시의 교육 상황에서, 특별활동이란 하나의 과외활동으로서 교육과정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험중심 교육과정 사조에 기반

---

2) 김명례,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관리자의 관심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9-10.

3) 김명례, 상계서, p.10.

4) 교육부(1994),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제35호.



을 둔 1954년도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서는 종래 사용해 오던 ‘교과과정’이란 용어를 ‘교육과정’으로 바꾸고, ‘과외활동’이란 용어도 ‘특별활동’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약 30여년간 ‘특별활동’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온 셈이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어휘 중에서 우리의 특별활동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말은 다양하다. “예컨대 과외활동(extra curricular activities), 학급의 활동(extra class activities), 학생활동(student activities), 협력과정활동(cocurricular activities), 학생활동(student activities), 협력과정활동(cocurricular activities), 병행과정활동(collateral activities), 연대활동(allied activities)등이 그것이다.”<sup>5)</sup>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어휘는 ‘extra curricular activities’와 ‘cocurricular activities’이다. 이 두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과외활동(혹은 기타과정활동)’과 ‘협력과정활동’이 된다. 이 중 협력과정활동이란 용어는 특별활동이란 것이 교과활동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의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교육활동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유연구, 교과 이외의 활동, 특별활동이란 용어로 사용해오다 1970년 이후에는 ‘각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6)</sup>

우리 나라는 특별활동의 세 영역 즉, 학생회 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에서 특히 클럽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점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방안으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권장하므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학생의 소질·적성 개발 및 보충 심화교육의 기회제공 등으로 올바른 인성의 정착과 학교교육에서 교과목 위주의 교육만 중시해 왔으나 이제는 전인교육 차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학교의 인적 물적자원 활용의 극대화과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의 기능

---

5) 김명례, 전게서, p.11.

6) 김명례, 전게서, p.11.



을 확대해야 하며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역할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개성과 소질을 조기 발굴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다.”<sup>7)</sup> 또한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생계비의 12%를 과외비로 지출하고 있어서 특히 IMF 체제 아래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sup>8)</sup> 그래서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유인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sup>9)</sup> 학교의 시설, 고급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의지가 특기·적성 교육활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교육시설이 유향 하므로써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였다. 또 많은 고급인력이 사장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 “여성개발원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기·적성 교육활동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특기·적성 아동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기·적성 아동지도란 초등학교 학생(6-12세)을 주요 대상으로 학교 시작전과 끝난 후,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 일정한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0)</sup> 이것은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보육과 교육을 포함하는 여러 선진국이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론적 근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개념은 학교에서 정규교육 활동 이후에 학생의 개성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기를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목적은 학생의 소질, 적성개발 및 보충 심화 교육의 기회제공 등으로 바른 인성의 정착에 그 목적을 두었다.

7) 한국초등교육협회, 한국초등교육 제18호(서울:한국초등교육협의회, 1997), pp.173-174.

8) 중앙일보, 중앙일보 사설(2면). (1998.7).

9) 한국초등교육협회, 전개서, p.174.

10) 한국여성개발원 홍보자료집, 1994.11 ,P.56.



“학생의 소질·적성개발 및 보충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인성교육 정착과 학교의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지역사회 교육·문화 센터로의 역할로 학부모의 과대한 사교육비 경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11)</sup>

“특기·적성 아동지도가 일차적으로 보호의 목적을 갖지만 초등학교 단계의 아동은 영유아와는 발달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 및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기술하였다.”<sup>12)</sup>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동의 발달과제-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욕구 충족에 그 목적을 두도록 강조하였다.

그러면 최근의 상황에 맞는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과 기능의 이론을 원용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Baden 외 3인에 의하면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목적을 결정짓는 주요 원천으로 아동, 학부모,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도자, 지역사회의 요구에 두고 있다. 이들 각각의 요구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아동의 요구면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사회적, 지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인 요구로서 아동이 성장하고 존중하며 즐길 수 있도록 안정되고 다정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길러주며 정해진 한계 내에서의 자유를 허용하여 창의성을 고무시키는 여러 활동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충족이 가능하다.

둘째, 학부모의 요구면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학령아동 부모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안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학부모의 요구, 가치관,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도자의 요구면에서 적절한 보수와 작업환

---

11) 서울시 남부교육청, “방과후 교육활동 강화 방안”, 1997.5 .P.13.

12) 이 옥, “탁아 연구” (양서원, 1995), p.20.



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 대 지도자의 적절한 비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요구면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자긍심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곧 아동, 학부모, 특기·적성 교육 활동 지도자,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3)</sup>

“Seligson은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가 개입하는데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sup>14)</sup> 첫째, 부모들의 학교를 위한 지원 둘째, 공공 교육 자원으로서의 방과후에 비어 있는 교실의 효과적인 재사용, 셋째,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아동들의 파괴적인 성향과 의기소침의 감소, 넷째, 차별대우 폐지(흑인에 대한)와 비공식 유인,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아동 수의 유지와 증가에 대한 용이성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Seligson은 부정적인 측면에 언급하였다. 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② 운영의 어려움, ③ 학교 정책의 부적합성과 부재 등이다..

이를 토대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목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소질, 적성개발 및 보충 심화 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바른 인성의 정착

둘째, 아동의 사회적, 지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활동의 선택권 부여

셋째, 학부모,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도교사, 지역사회의 욕구충족

넷째, 학생의 독립심, 협동, 자기통제, 책임감 등을 포함하는 자율성을 기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13) P.K. Baden, A.Genser, J. A. Levine, M. Selingson(1982), School-Age child cwe,(London: Auburn House Publisshing company), 한국여성개발원, Ibid, P. 1~14.

14) Seligson, M. Gennet, E. & Gray, (N.(1983). "school-age child care: A policy report",(ERIC, ED), P. 242.



## 2.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成立背景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주요 목적은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필요성과 특기·적성의 아동지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사실 방과후의 아동은 “과도하게 TV를 시청하거나,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부모의 귀가 시간까지의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방치”<sup>15)</sup>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전후하여 영유아 보육 문제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여성개발원 등에서는 영유아보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의 도입과 추진에는 교육적 요구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학생의 흥미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취미 생활과 창의성 및 소질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집단 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 추진방향에서 제시한 ‘방과 후 교육활동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의 장인 학교를 방과 후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주도로 학생의 흥미·취미 및 학교 실정과 지역 특성에 알맞는 각종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

② 학부모·지역사회가 원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소질, 적성 및 창의력 신장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③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도교사는 희망하는 교원, 교원 발령 대기자 또는 특정 기술, 기능 보유자 등을 계약 고용하거나 명예 교사, 실력 있는

---

1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교육 개혁의 추진”, P.104.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sup>16)</sup>

1) 학교에서 추진할 사항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학교 현장에서 추진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7)</sup>

- ① 방과 후 교육활동 수요조사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 ② 방과 후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관계자의 의식 전환
- ③ 특기 신장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
  - 영어 회화, 한자, 컴퓨터, 음악, 체육, 문예 등
- ④ 소질 계발 및 특기지도 상설 클럽활동반 운영
- ⑤ 지도 교사 확보
  - 당해 학교 교사
  - 외부 강사 초빙, 특정기술·기능 보유자 조사
  - 명예 교사·각종 사회 단체·봉사 단체와 협력
- ⑥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활성화 방안마련
- ⑦ 방과 후 교육활동 후원회 구성
  - 최소한 필요경비 수익자 부담

### 3.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內容

1)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內容

학교 수업활동은 교육과정 운영 활동이지만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어디까지나 아동의 흥미에 따른 선택이므로 아동의 흥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6) 교원연수자료,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서울: 서울시 교육청, ), 1996, pp.79-80.

17) 교원연수자료, 전게서, pp.79-80.



“Perscott & Millich(1974)는 미국의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을 내용과 시간 배정 비율을 따져 조사하였는데 학습과 관련된 활동은 전체활동의 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간이 스포츠, 예술 활동에 주로 할애되어 있음을 알아냈다.”<sup>18)</sup>

미국의 경우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특기·적성에 실시되는 데 주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리나 숙제지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지역사회 및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sup>19)</sup> 라고 그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결정, 강사선정, 강사료 결정 등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강제성을 띤 일률적 형태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지양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3) 학교의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사회 교육,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운영 방안으로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사회의 특성,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의 희망을 받아 개설하고 수요가 많은 부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개설한다.

강사 선정은 능력 있는 현직교사와 발령 대기자를 활용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한다. 자격은 객관적 검증자료 확인 및 지도능력을 점검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원어민은 보조강사로만 활용한다. “세부 사항에서는 특정기술 및 기능 보유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을 계약 고용하거나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교과목의 강사를 다수 확보하여 강사 확보에 곤

---

18) Perscott, Elizsbeth, and Cynthia Millich(1974), School's out! Group Day care to the School-Age child, Pasadena, P. 68.

19) 서울시 남부교육청, “방과후 교육활동 강화 방안” 1995. 5, P.32.



란한 학교를 지원한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소요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한정하고 학교운영비와 별도로 학부모 부담경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또 외부강사의 강사료 및 현직교사의 교육활동연구비는 지역 및 학교실정,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한다.”<sup>20)</sup>

기타사항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가정형편이 빈곤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등은 특기·적성 교육활동비를 면제하고 희망부서에 참여토록 조치하며 특기·적성 교육활동도 계속적인 학교교육으로 인식하여 학생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관련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또 학원 및 예·체능 교습소의 집단민원의 사전예방과 특기·적성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행정사항으로서 수강료는 가급적 월정 액으로만 징수하고 특기·적성 교육활동 실시현황 및 결과는 담임장학 또는 종합장학시 협의하고 특기·적성 교육활동 수업공개를 권장한다. 지역교육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한다.

## 2) 特技・適性 教育活動 運營 現況

방과 후 교육활동의 운영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거의 시범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운영의 실상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활동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며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의 기본 방향은 ‘방과 후 특별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규 수업시간의 교육활동은 물론 방과 후 에도 교사와 학생이 한데 어울려 취미·특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오고 싶은’ 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sup>21)</sup> 즉 신나게 가르치고

20) 홍기선, 전게서, pp. 11-12.



즐겁게 공부하는 본래의 학교모습으로 전환하며, 서로 다른 모습의 학생으로 육성하고, 방과 후 활기찬 취미·특기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 회복과 전인교육의 이념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교육과정 특별활동 영역의 목표와 내용을 근간으로 시·도 교육청·지역 실정에 맞게 주요 사업 또는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대도시 중심의 시·도 교육청에서 특별활동 영역 중 클럽활동의 정상운영과 특기 신장을 위한 활동이 다소 미흡하며, 즐거운 학교운영, 교실 개혁 차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교 경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교과활동만을 중시하는 고정 관념, 클럽활동 위주의 형식적인 운영, 다양한 지도 자료 개발·보급 및 활용 부족, 특별활동 교원 연수 및 체계적인 연구활동 미흡, 교사 업무 부담의 증가, 자질 있는 지도 교사의 부족, 외부강사 명예교사 등 자원인사 활용의 어려움, 교육 시설 공간 확보 및 교재·교구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기본 방침으로서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다양화 둘째, 흥미·소질 및 적성을 고려한 특기 신장 교육 기회 확대 셋째, 특기·적성 교내 특별활동의 활성화로 과외 수업 문제의 근원적 해결 모색 등을 설정하고 있다.”<sup>22)</sup>

이상을 통해서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의 실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방과 후 특별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장려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운영의 목표는 학교의 신뢰 회복, 과외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전인교육의 구현이다.

둘째, 주로 특별활동 영역 중에서 클럽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영어회화, 공작, 문예, 독서, 한자, 전통놀이 등이 적극 권장되

---

21) 송미섭,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11.

22) 임연기,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정책논단」, 여의도 연구소(1995.12), pp.76-77.



고 있기도 하다.

셋째,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서 그 운영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울 만큼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시설과 자원인사의 확보에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운영 양상이 학교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립학교 보다는 사립학교, 농촌지역 학교 보다는 도시지역 학교에서 더욱 활발히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의 일부 학부모, 일부 학원 운영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 3)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活性化

교육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 과제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 및 창의력을 계발하고,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며, 학교의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학교 밖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정규수업 시간 이후 교육수요자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특기·적성 아카데미 및 예체능 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한다.”<sup>23)</sup>

<표 3> 특기·적성 교육활동 현황(1997. 6)

|     | 구 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학교  | 총 수(개교) | 5,706     | 2,725     | 1,907     |
|     | 참여수(개교) | 5,675     | 2,599     | 1,758     |
|     | 참여율(%)  | 99.5      | 95.4      | 92.2      |
| 학생수 | 총수(명)   | 3,781,488 | 2,180,737 | 2,333,379 |
|     | 참여수(명)  | 1,500,527 | 1,187,562 | 1,666,444 |
|     | 참여율(명)  | 39.7      | 54.5      | 71.4      |

23)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 제87집, “교육개혁의 종합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1997.12, pp.114-115.



#### 4) 特技・適性 教育活動을 위한 私教育費

##### (1) 사교육비의 개념

“사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공교육비와는 달리, 공공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간의 개념 구분은 부담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직접 행위자가 개인이나 공공단체, 즉 교육 시행기관이냐에 의해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은 수업료등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학용품 구입 등과 같은 필수적인 학교활동 보조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혹은 부족한 학교의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과외교육비 등을 지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전자는 공교육비가 되고, 후자가 사교육비가 된다.”<sup>24)</sup>

따라서 “사교육비는 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 중에서 공교육비를 제외한 경비로 교재대, 부교재대, 과외 수업비, 학용품비, 학교 지정 용품비, 피복비, 숙박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등을 말한다.”<sup>25)</sup>

“사교육비의 개념은 먼저 교육비 개념의 이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는 교육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말하며 경비의 운영실태, 부담의 주체, 사용 목적,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교육비는 교육목적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로 분류된다.”<sup>26)</sup> 즉 “직접 교육비는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경비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모두 포함된다. 반면에, 간접교육비는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육기간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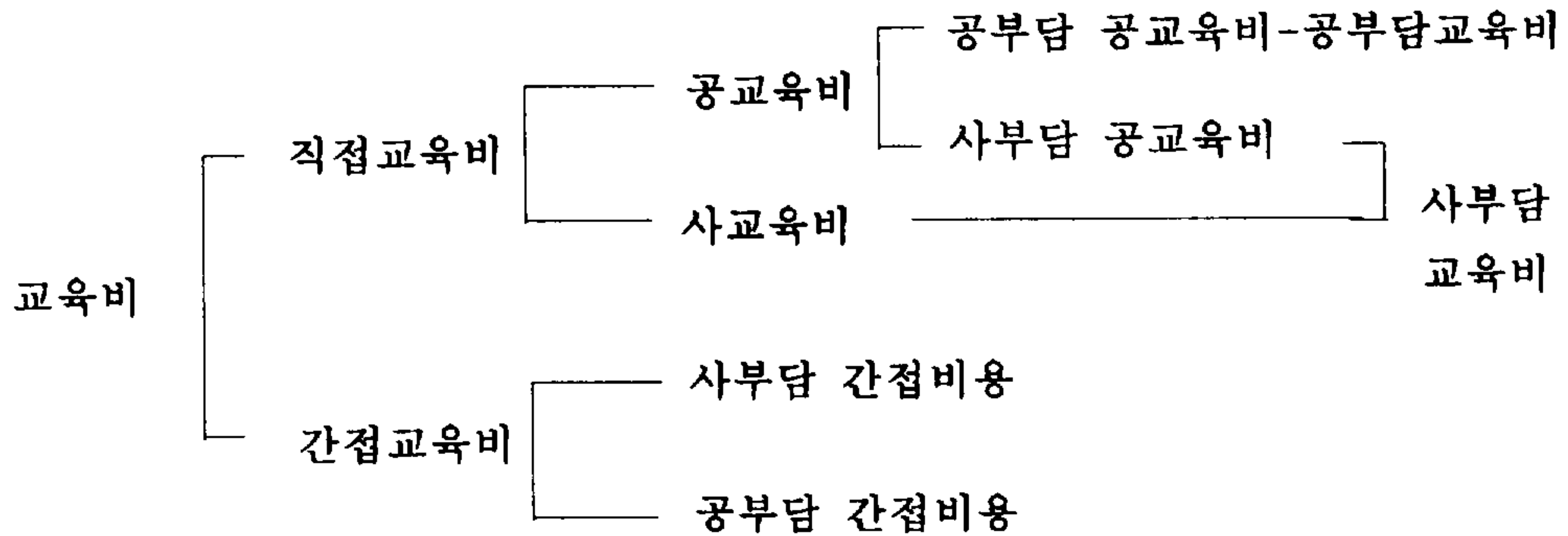
24) 공은배·천세영, “한국의 교육비 수준”(서울 : 한국 교육개발원), 1990, p.31.

25) 송은섭·나동환,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론, (서울 : 형설 출판사), 1994, p.401.

26) 김형철·공은배, 교육경제와 재정, (서울 : 한국교육 개발원), 1988, p.350.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실 소득인 기회비용을 뜻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sup>27)</sup>



<그림 1> 교육비의 분류

<그림 1>에서 직접교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혹은 정부 수준의 교육 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교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유실 소득을 말한다. 이 간접교육비는 기회비용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으로는 학교 재학 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유실되는 소득을 말한다.

한편 직접교육비는 교육에 직접투입되는 비용으로서 공교육비만을 일컫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공교육비는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공부담 공교육비와 사부담교육비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사부담교육비와 사교육비와의 차이점이다. 이 둘은 학부모가 그들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즉 사부담 교육비라는

27) 김용성, “사교육비 지출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논문), 1994, p.5에서 재인용.



점에서는 같으나 사부담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지출하는 납입금(수업료, 입학금 등)이 되나 사교육비는 학교 교육비에 계산되지 않는 학용품비, 교통비, 잡비 등을 말한다. 간접교육비란 기회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총 교육비의 일부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지출하는 경비로 보는 견해와 순수하게 공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보는 두 견해가 있다.

보통 사교육비는 총 교육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로 인식되고 있으나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견해 차이가 있다. 몇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사교육비를 학교 교육을 제외한 과외교육비와 특기·재능을 위한 학원비 등으로 규정하였다.

공은배·천세영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와는 달리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부족한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과외 교육비 등이 사교육비가 된다.”<sup>28)</sup> 윤정일은 “사교육비는 합법적인 공공단체의 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로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 단체활동, 과외수업, 학교위생, 검고사(檢考査), 숙식, 통학 등에 투입된 경비를 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29)</sup>

한편 송미섭·나동환은 “사교육비의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을 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 중에서 공교육비를 제외한 경비로 교재대, 부교재대, 과외수업비, 학용품비, 학교지정 용품비, 피복비, 숙박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등을 사교육비로 보고 있다.”<sup>30)</sup>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사교육비는 교육비의 분류에서 지칭하는 사부담 교육비 중 공교육비를 제외한 순수한 학교 교육의 유지 및 보충을

---

28) 공은배·천세영, 전개서, p.31.

29) 윤정일, 한국의 교육 재정 (서울 : 한국 교육 개발원), 1988, p.6.,

30) 송미섭·나동환, 전개서, p.403.



위해 보수적으로 투입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학부모가 학생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사설 학원 수강료, 예체능 교육비(특기·재능 학원비), 과외 공부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될 수 있다.

## (2) 사교육비의 현황과 과외과외의 문제점

### ① 사교육비의 현황<sup>31)</sup>

정부예산, 즉 조세부담에 의한 교육지출과 직접 학부모에 의한 교육비 지출을 비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대우경제연구소의 제3차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에 의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총 교육비는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록금 및 과외비, 특별활동비, 학령전 아동교육비, 기타비용 등으로 1993년의 19조 2,760억원에서 1994년에는 22조 6,060억원으로 17.3% 증가하였고 다시 1995년에는 26조 5,780억원으로 17.6%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부담 교육비는 1995년도 공부담교육비(약14조원)의 약 1.9배에 달하며,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에는 7.6%로 1994년의 7.5%, 1993년의 7.2%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에 의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연간교육비 총액에서 과외비부담은 1995년에 8조 140억원으로 총 사부담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25% 달했으며 연평균으로 5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과외비 증가하는 대학입시에 있어 본 고사의 부활 및 논술고사의 도입에 따른 국·영·수 위주의 입시제도 변화와 과외의 보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31) 박정수, “한국 사교육비의 확장과 교육기회의 형평”, (과외와 사교육비 : 한국적상황분석과 대응전략, 97년도 춘계학술대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pp.87-91.



<표 4> 연간 사교육비 총량규모와 증가율<sup>32)</sup>

(단위:10억원,%)

|          | 1993   | 1994   | 1995    | 연평균 증가율 |
|----------|--------|--------|---------|---------|
| 학교교육비    | 10,938 | 11,906 | 11,185  | 1.4     |
| 과 외 비    | 3,410  | 4,696  | 8,014   | 54.2    |
| 기 타      | 4,928  | 6,004  | 7,379   | 22.4    |
| (특별활동비)  | -      | -      | (2,804) | -       |
| (학령전교육비) | -      | -      | (2,506) | -       |
| (기타교육비)  | -      | -      | (2,069) | -       |
| 총사부담교육비  | 19,276 | 22,606 | 26,578  | 17.4    |

주:국내 총 가구수는 1993년 1,244만 가구, 1,283만 가구, 1995년 1,101만 가구로 모집단화 하는데 활용함.

과외를 시키는 비율은 역시 서울이 가장 높고 다음이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간의 과외가구 비중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외를 받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과외비는 서울이 21.6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중소도시가 17.3만원, 대도시가 16.3만원으로 나타나고 전국 평균적으로는 월 과외비가 18.7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과외를 시키는 비율이나 지출하고 있는 과외비 평균 액수 측면에서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과외여부 및 과외수업비 지출규모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은 사회계층간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형평상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비 조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과외를 시키는 비율이나 월평균 과외수업비 지출규모의 차이가 뚜렷해 소득수준에 따라 과외여부와 규모가 미래하는 모습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2) 대우경제연구소, “제3차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 1996, p.121.



<표 5> 과외가구 비율과 월평균 과외비(단위:%)<sup>33)</sup>

(1995년도 기준)

| 지역별규모     | 초등학교부터<br>고등학교까지<br>취학자녀<br>가구수<br>(A) | A 가운데<br>과외를 받는<br>가구수<br>(B) | 과외가구<br>비율<br>(B/A) | 과외를 받는<br>1가구당<br>월평균<br>과외비<br>(만원) |
|-----------|----------------------------------------|-------------------------------|---------------------|--------------------------------------|
| 서울        | 363                                    | 273                           | 75.2                | 21.6                                 |
| 대도시       | 303                                    | 199                           | 65.7                | 16.7                                 |
| 중소도시      | 615                                    | 317                           | 51.5                | 17.3                                 |
| 전체        | 1,281                                  | 789                           | 61.6                | 18.7                                 |
| 월평균소득 수준  |                                        |                               |                     |                                      |
| 50만원미만    | 80                                     | 26                            | 32.5                | 9.5                                  |
| 50-99만원   | 133                                    | 51                            | 38.3                | 11.3                                 |
| 100-149만원 | 263                                    | 135                           | 51.3                | 21.7                                 |
| 150-199만원 | 313                                    | 223                           | 71.2                | 16.9                                 |
| 200만원이상   | 492                                    | 354                           | 71.9                | 20.3                                 |
| 전체        | 1,281                                  | 789                           | 61.6                | 18.7                                 |

주: 대도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포함되고, 중소도시는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포함됨.

<표 5>는 1995년도 조사대상 총 3,108가구 중에서 첫째, 소득금액이 명확하고 둘째, 교육비, 과외,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는 월 평균 교육비로 430만원에서 550만원사이의 구간을 제외하고는 역진적인 교육비 부담구조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교육비 부담은 소득의 14.5%를 차지하였고, 소득계층에 속한 가구는 총 소득이 3.8%만을 지출하는 데 비해 최저의 소득계층에 속한 가구의 경우는 교육비 부담이 2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대우경제연구소, 전제서, p.123.



<표 6> 소득별 월평균 교육비 부담율<sup>34)</sup>

(단위:가구수,%)

| 소득구간              | 가구수   | 평균교육비 부담율 |
|-------------------|-------|-----------|
| 130만원 이하          | 529   | 22.3      |
| 13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 620   | 16.3      |
| 200만원이상 - 240만원미만 | 321   | 15.1      |
| 240만원이상 - 270만원미만 | 117   | 12.8      |
| 270만원이상 - 310만원미만 | 146   | 11.7      |
| 310만원이상 - 370만원미만 | 65    | 11.3      |
| 370만원이상 - 430만원미만 | 46    | 9.3       |
| 430만원이상 - 550만원미만 | 42    | 9.7       |
| 550만원이상 - 800만원미만 | 21    | 5.6       |
| 800만원이상           | 4     | 3.8       |
| 전 체               | 1,911 | 14.5      |

주: 1) 월 평균 소득에서 월 평균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1995년도 기준)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조세에 의한 공 부담 교육비규모(1995년 기준 14조원)의 두 배 가까운 26.6조원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부담 교육비 규모가 큰 것 자체가 바로 교육비 부담구조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학교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부담수준이 획일적인 수업료 및 학교 교육이 필요한 제반의 경비(42.09%)와 학교 수업의 선행학습 및 반복학습에 불과한 과외 비 위주(30.25%)라는 점에서 사교육비 위주의 교육비 구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지역적 및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부담분포의 분석을 통해 역진적인 사교육비 부담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제도의 전반에 대한 개혁과 함

34) 대우경제연구소, 전개서, p.124.



게 사교육비를 공 교육비로 흡수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는 1997년 3월 '과외실태조사팀'을 구성하여 과외실태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서울대 교육 연구소팀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70.3% 중등학생의 49.5%가 현재 과외를 받고 있거나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현재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이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등학생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을 제외한 중학교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표집하였기 때문에 전체 중등학생 수 대비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초등학생 70.8% 일반계 중등학생 61.8% 그리고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86.0%가 대학 입학 전의 과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5)</sup>

서울대 교육 연구소팀은 표본집단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나라 전체 과외 수업비 규모를 추정하였다. 조사결과 97년도에 약 9조 4,300억원이 사교육비 중 과외비로 소요된 금액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각 시·도의 학생수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즉 지역별 인구 가중치에 비추어 추정된 수치이다.

1997년 5월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1조 9천억원이라는 연간 사교육비를 발표하였다. “학생 성적을 상·중·하로 볼 때 상위권 학생이 사교육비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을 제외한 교재대, 과외비 등을 포함한다.”<sup>36)</sup> 따라서 사교육비는 과외비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과외비와 구분하여야 할 개념이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11조 9천억의 연간 과외비를 '사교육비'로 명명했다고 하면 그 수치는 서울대교육연구소 조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과수치 분석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육연구소팀은 과외수업의 교육적 효과 여부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설문조사 한 바 있다. “일반의 의식과는 달리 근본적인 학력향상이 과외수업보다는 학교 수업에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인식하는 학교 수업의 긍정적

35) 조선일보(6면), (1997.5.12)

36) 동아일보(6면), (1997.5.19)



효과를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46.2%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학교수업이 자신들의 학력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sup>37)</sup>

## ② 과열과외의 문제점

“과열과외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심각하지만, 이들은 크게 보아 학생의 입장, 학교의 입장, 학부모 입장의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38)</sup>

첫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과외는 학교교육의 목표에 위배되는 입시 위주의 단편적 지식 전달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등정신능력의 발달을 억제시키고 자율적 학습 태도를 약화시킨다.”<sup>39)</sup>

“과외는 학습에서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위주로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고력 신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sup>40)</sup> 그리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과외를 많이 받은 학생들은 과외를 통하여 교과내용을 미리 배웠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고, 학교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서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마저 줄어들고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고 학업성적만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셋째,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과외가 입시에 효과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일반 서민층의 학부모에게도 과외욕구를 불러넣게 되어 가계비의 많은 부분을 자녀의 과외비로 지출하게 된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투자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비정상적으로 과외에 투입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

37) 김정래, “과외해소 방안은 학교안에 있다.”, (새교육 ; 한국교육신문사), 1997.7, pp.140-141.

38) 김형출, “초등과열과외의 현황과 개선방안”, (새교육 ; 한국교육신문사), 1997.7. pp.115-116.

39) 윤정일 외, 한국의 교육 정책(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1992.p.194.

40) 허경철, “과열과외의 비교육적 현상과 학교교육의 정상화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망국과외 해소방안 모색, 토론자료), 1997.4.30. p.179.



소모적인 지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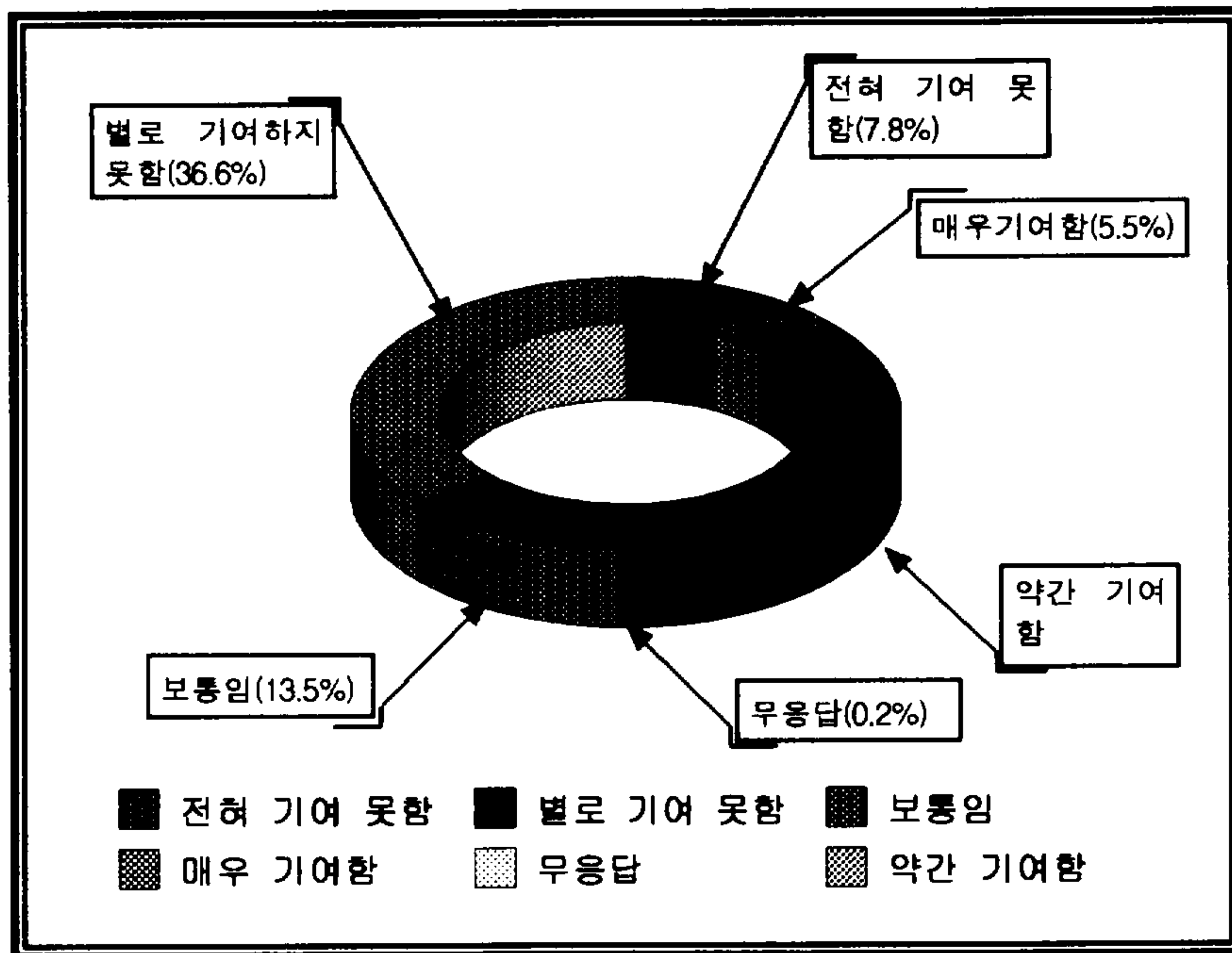
### (3)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학교 밖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96년부터 수익자 부담에 의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실제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는 양분되고 있다. <그림 2>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41.9%,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4.4%, 보통이라는 보는 응답이 13.5%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볼 때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집단은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51.5%)의 지지도가 고등학교(39.5%)나 중학교(32.1%) 교원들에 비해 높았다. 직위별로는 교장은 기여하고 있다.(52.7%)는 견해가, 교사들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49.1%)가 우세하였다.”<sup>41)</sup>

<그림 2>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사교육비 경감효과



41) 정책연구 제87집, 전게서, p.188.



#### 4.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運營 實態

##### 1) 政策背景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교육부의 정책배경은 우선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을 학교에서 모두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① 정규학교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정분야의 특기·특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과 ②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과 ③ 다인수학급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교육수요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42)</sup>

한편, 교육부에 의해 발간된 또 다른 책자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①'94년 기준 입시 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 학원비 등으로 지출되는 약 17조 5천억원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과 ②학생의 소질·적성개발 및 보충교육의 기회 제공 등으로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활용한다는 목적과, ③ 학교의 시설 및 인력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목적의 세 가지<sup>43)</sup>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적 또한 중요하게 취급된다. 초등학교 단계의 아동은 영유아와는 발달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학교 및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주요한 목적<sup>44)</sup>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42) 교육개혁위원회,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Ⅳ)”, 1997, p.161.

43)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 홍보 자료집”, 1996, p.34.

44) 이 옥,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의 방향”,(삼성복지재단 어린이 개발 센터),1994, pp.27-31.



## 2) 運營 實態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은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특기·적성에 정규학교운영과 구별되는 ‘특기·적성 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청소년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 수요자 중심의 특기활동, 특별활동 등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필요시 교과목 과외 프로그램도 허용하며 대학이나 각종 사회단체의 협력을 받아 영어회화, 컴퓨터, 글짓기 등의 프로그램도 개설 가능하다.

○.강사진 : 희망 교사 외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인 학부모, 교대생 및 사대생, 전공과 부합되는 일반학생, 기타 자원인사 등의 인력을 활용한다.

○.비용 :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저렴하게 결정하며, 교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두 학교 이상이 연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청소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sup>45)</sup>

이상과 같은 개략적인 정책 지침외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 소년 소녀 가장, 가정 형편이 빈곤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들은 특기·적성 교육활동비를 면제, 희망하는 부서에 참여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추진과 아울러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및 실태 파악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

45) 교육개혁위원회, 전제서, p.163.



### 3) 現況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행초기에 있는 만큼 운영의 규모와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며, 수강과목이나 강사의 유형 등에 관한 일부의 자료만이 탐색되어 있을뿐더러, 이하에서 현재까지의 탐색된 자료를 중심으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현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운영현황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일반교과와 예·체능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체육과 관련된 과목수가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71종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수강과목<sup>46)</sup>

| 계 열  | 일반교과 | 음악 | 미술 | 체육 | 기타 | 계  |
|------|------|----|----|----|----|----|
| 초등학교 | 16   | 16 | 9  | 20 | 10 | 71 |

출 처 :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국, 1997. (단위 : 種)

과목별로는 영어와 컴퓨터가 전체 수강율의 68.4%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 관련 과목의 수는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나, 주로 일부의 과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목편중현상은 <표 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목을 담당할 만한 자원의 편중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46)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국 홍보자료집, 1997, p.38.



<표 8> 과목별 수강율<sup>47)</sup>

| 순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과목 | 영어   | 컴퓨터  | 미술  | 바이올린 | 국악  | 서예  | 글짓기 | 무용  | 태권도 | 한자  |
| %  | 50.4 | 17.4 | 5.7 | 4.8  | 2.7 | 2.3 | 2.0 | 1.9 | 1.3 | 1.3 |

출처 : 교육부 교육정책 기획국

대부분의 강사들이 교사와 외부강사로 충당되고 있으며, 강사중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4.3%로서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영어와 컴퓨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과목에서 학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은 10%미만으로, 이러한 결과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위해 개설된 과목들 중에 단지한 두 개의 과목에 수강인원이 집중된다는 것과, 집중된 과목들은 외부강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보충수업의 연장이나, 단순히 외부학원에 개설된 과정을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인성교육과 같은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포괄적 목적은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표 9> 강사 유형<sup>48)</sup>

| 강 사 | 교직원  | 외부강사 | 학부모 |
|-----|------|------|-----|
| %   | 48.0 | 47.7 | 4.3 |

출처 :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국, 1997

47) 교육부(1997), 상계서, p.39.

48) 교육부(1997), 전계서, p.40.



<표 10> 외부강사 의존율<sup>49)</sup>

| 과목/강사 | 교직원  | 외부강사 | 학부모  |
|-------|------|------|------|
| 영 어   | 11.2 | 84.6 | 4.2  |
| 피아노   | 20.9 | 74.4 | 4.7  |
| 바이올린  | 3.7  | 93.2 | 3.1  |
| 국 악   | 27.4 | 70.5 | 2.1  |
| 무 용   | 14.7 | 79.6 | 5.7  |
| 수 영   | 22.6 | 77.4 | -    |
| 태권도   | 9.9  | 77.9 | 12.2 |
| 컴퓨터   | 31.4 | 67.7 | 0.9  |

출처 :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국, 1997

## (2) 운영유형<sup>50)</sup>

교육부에서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범주를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기·적성 탁아기능의 확대와 강화, 둘째 특기·적성 아카데미의 설치 및 내실화, 셋째 예·체능 아카데미의 설립 및 운영 권장이 그것이다.

### ①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기·적성 탁아기능의 확대와 강화

이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탁아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건전한 인성배양을 도모하는 특기·적성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의해 학교유치원의 종일반을 확대하거나, 특기·적성 아동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대행업체가 유아 및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49) 교육부(1997), 상계서, p.41.

50) 정소자, 전계서, pp.11-12.



## ② 특기·적성 아카데미의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이는 학교시설을 특기·적성에 활용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들의 다양한 과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규수업 이후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특기·적성 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청소년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③ 예·체능 아카데미의 설립 및 운영 권장

유아를 포함한 교육수요자들이 예·체능에 관련된 과외육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군·구 교육청별로 예·체능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것은 지방 공기업 체제를 통한 경영개념의 도입으로 민간부문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예·체능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 과제는 예·체능 아카데미를 각 시·군·구 교육청이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체능 아카데미는 기존의 유·초·중등 학교에 부설하거나 구민회관, 기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설립한다는 것이다.

## 5. 先行研究의 考察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실태를 분석하는 소수의 연구물이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 그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의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승택은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의 E.S.S(Extended School Service), 프랑스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독일의 Hort, 일본의 아동관 등의 프로그램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①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②특정한 엘리트를 육성하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며, ③특기·적성 교육활동이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성도야를 위한 기능을 수행해



야만 한다.”<sup>51)</sup>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김명례는 “교사, 학교행정가,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 등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정도를 탐색하고, 그 결과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들은 담당교사와 학교행정가와 달리 거의 무관심의 단계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관심의 심화정도와 성숙 정도에 의해 거의 무관심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각적 관심으로부터 대안적 관심으로 서열화 할 경우 교사와 행정가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대부분은 지각적 관심의 다음 단계인 정보적 관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일선 학교의 교사들에게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흥미를 갖도록 관련 정보에 노출시키는 것이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sup>52)</sup>

손재봉은 “국민학생들의 학원수강 실태와 그것에 관련된 제 변인 분석을 주제로 연구하여 ① 국민학교에서 특별활동 클럽활동 등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어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 활성화 ② 학교 공부의 결손정도 성장발달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 시켜야겠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 등의 결론을 내렸으며 개선방안으로는 ① 학교의 규모와 여건에 알맞은 클럽활동이 운영되어 특기·적성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이 성숙되기를 요망함 ② 학생의 취미, 특기 개성의 신장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설이나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면에 대해 제시하였다.”<sup>53)</sup>

이현준은 “초등학교 특기·적성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① 학생들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주로 시설이 미비한 학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에서 특별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학교 밖의 과외활동에 의존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② 교사·학부모 모두는 특기·적성 특별활동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③ 방과 후 특별활동

---

51) 최승택,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p.74-75.

52) 김명례, 전게서, pp.55-62.

53) 손재봉, 국민학생들의 학원 수강 실태와 그것에 관련된 제 변인 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육에 대한 학교 밖의 관심을 학교 안으로 유인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개선방안으로는 ① 학교의 유휴 교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방과 후 특별활동이 요망됨 ② 방과 후 특별활동 담당 교사의 연수가 절대 필요함 ③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sup>54)</sup>

인천 부개서초등학교에서는 “지원 협의회 구성 활용을 통한 상설 클럽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결론으로는 ① 상설 클럽활동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상설 클럽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학부모의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음 ② 지역 실정에 알맞고 아동과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부서를 선정 조직하고 어린이 활동 수준에 맞는 주제를 정하여 예상활동 과정안을 작성 활용 함으로써 소질 계발 및 개성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① 상설 클럽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기능이 부족한 교사의 자발적인 기능 연수와 연찬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 밖의 학원 수강을 더 중시하는 학부모의 교육 풍토 해소 방안이 요망된다고 제시하였다.”<sup>55)</sup>

이춘회는 “국민학교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하였으며 결론으로는 ① 의무교육 단계의 무상화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완전 무상화가 불가피하여, 학생1인당 공교육비가 낮기 때문에 사부담 교육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② 사교육비 항목 중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은 학원비로서 1년간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상까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③ 1년간 총비용은 평균 1인당 88만원대로 6년간 총사교육비는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54) 이현준,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55) 인천부개 서초등학교, “지원협의회 구성·활용을 통한 상설 클럽활동의 활성화 방안”,(특별활동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1996.



방안으로는 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하여 막대한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로 유입 되어야 됨 ② 사교육비의 항목 중 학원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학교 밖의 학원 교육을 학교안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예능 및 특기 신장 교육을 대폭 활성화 함 ③ 특활제도를 신설하여 예능 및 특기 교육을 맡은 교사에게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교사의 사기를 앙양시켜야 하겠다.”<sup>56)</sup>

주영란은 “국민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경향 분석 연구하였으며 결론으로는 ① 교육에 투자되는 직접 교육비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공사교육비 중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점점 더 증가 현상에 있음 ② 사교육비의 유형도 정규활동 지원을 위한 잡부금에서 예·체능 교육이나, 과외 수업비, 부교재비 등 개별적 보충교육이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교육비로 변해가고 있음 이러한 사교육비의 격차로 인해 국민학교 단계에서부터 아동들 간에 교육에 대한 경쟁심과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며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고 생각됨 ③ 사교육비의 지출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외수업비로서 이는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켜 가정경제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침해하고 전인적 발달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막대한 사교육비가 공교육으로 유입되어야 함 ② 사교육비의 항목 중 학원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학교 밖의 학원 교육을 학교 안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에서 예능 및 특기 신장 교육을 대폭 활성화하여야 됨 ③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활동이나 행사는 모든 학생에게 유익한 경험일수 있으나 학생의 경제적 배경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sup>57)</sup>

56) 이춘희, “국민학교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57) 주영란, 국민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경향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윤철경은 “초·중등교육사부담 교육비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에 관한 분석하였으며 결론으로는 ①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국민학교 단계의 사교육이 확대되고 증가되는 이유인 중등교육의 확대는 이른바 구시대의 하층계급의 입시경쟁 참여에서 출발했고, 그에 위기를 느낀 상류 계급층에서 그치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확대·번창해 버린 것이라는 주장을 펴 ③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국민학교의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현저하다. 개선방안으로는 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② 교육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교육비가 확충되어야 사교육비의 확대를 줄일 수 있음 ③ 방과 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 밖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수용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up>58)</sup>

김용성은 “사교육비 지출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연구하였으며 결론으로는 ① 사교육의 확대는 공교육인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큼 ②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교육과 현재 수강하고 있는 사교육의 내용은 차이가 있음 ③ 사교육 수강을 위한 비용 부담 능력에 있어서 상류층 보다 중류층과 하류층의 가정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① 사교육비를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의무 교육의 이념을 실현시킨다는 차원에서 공교육비로 모두 유입시켜 학부모들의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된다.”<sup>59)</sup>

외국의 방과후(특기·적성) 아동보육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특기·적성 아동보육 제도와 운영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58) 윤철경, “초·중등교육 사부담 교육비의 변화추이와 변화 요인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59) 김용성, 사교육비 지출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미국은 “등교전, 특기·적성 아동보육(Before & After school childcare)은 6-12세의 대도시 소외계층, 가정에 성인이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의무적으로 특기·적성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다. 특기·적성 보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보육시설을 두지 않고, 센터 중심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에서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업능력을 길러주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는 학교 등교 전과 특기·적성 2-4시간이다. 주로 비영리단체, 공립학교, 스포츠 센터, 교회, 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sup>60)</sup>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그 외의 특별활동을 위주로 하는 데, 특별활동은 요일별로 레크리에이션, 체육, 공작, 그림그리기, 발표와 그룹토의, 영화감상, 신문 또는 잡지 만들기 등을 한다.

독일에서는 “10세 이하는 호르트(Hort), 10세 이후는 ‘청소년의 집’에서 호르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호르트는 10세 이하의 결혼 가정 아동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학교 수업이 끝난 취학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품성 도야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주간 보호기관(Tageseinrichtung)이다. 이 시설은 유치원 건물 옆에 있어 유치원이 운영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한다. 운영시간은 일찍 출근하는 어머니들을 위하여 아침7시에 시작하는 등교 전 보육과 특기·적성 12:30-14:00시에 등원하여 점심시간, 14:30-15:30까지 숙제 및 개별지도, 15:30-18:00까지 여가활동, 18:00시에 귀가한다. 호르트에는 원장, 교사, 보조, 보조교사, 실습교사 등 직원과 부모위원회가 운영위원이 되어 운영을 맡고 있다.”<sup>61)</sup>

“10세 이상이 대상인 청소년의 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구(區)마다 몇 개씩 설립되어 있다. 부모들은 수입에 따라 특기·적성 (보육료)를 차등 부담한다.”<sup>62)</sup>

60) 정민자·박초아·이진숙, “방과후 아동지도”, (양서원), 1997, PP.65-66

61) 정미리, “독일의 방과후 프로그램(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통권 103호), 1996, PP.90-99.

62) 정민자·박초아·이진숙, 전게서, PP.70-71.



스웨덴은 “공공 보육제도를 가지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의 7-12세 아동은 특기·적성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학교시설, 유치원시설, 레저 센터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특기·적성 센터(after school center)가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기·적성 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정보육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데, 보육시설과 특기·적성 센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탁아모의 개인 가정에서 4명의 유아 및 아동을 지도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대상 유아 및 아동은 생후 6개월-12세까지로 되어 있다. 탁아모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다.”<sup>63)</sup> 근래에는 보육시설, 유아원, 특기·적성 센터를 한 시설 안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공동 아동 센터(Joint child center)를 권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특기·적성 아동보육을 ‘학동보육’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작하였다. 그 이후 민간 차원에서 논의되어 1963년에는 후생성(厚生省)이 학동보육을 위해 아동관(兒童館)에 국고를 보조하기에 이르렀다. 1966년에는 문부성(文部省)이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특기·적성 부모 부재아동회 육성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보조금이 삭감되었으나 이에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1976년에는 후생성이 다시 특기·적성 보육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이는 특기·적성 보육이 교육적인 측면보다 아동복지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1991년에는 후생성의 ‘특기·적성아동대책사업’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발전하게 되었다. 1994년에 시작된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의 합의로 공포된 Angel plan에서 활성화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용시설이 없고, 부모 퇴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전담교사가 없이 학부모 중 자원봉사자가 지도를 담당하는 곳이 많은 등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sup>64)</sup>

63) 정민자·박초아·이진숙, 전제서, P.67.

64) 박향아, “일본의 방과후 프로그램(학동보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제10권), 1996, PP.58-60.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 논문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 특별활동, 클럽활동 등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어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교사·학부모 모두는 방과 후 특별활동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알맞고 아동과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부서를 선정 조직하고 어린이 활동 수준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예상활동 과정안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소질 계발 및 개성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사교육의 확대는 공교육인 학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교육비 중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학원비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자녀는 과외교습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았다.

과외교육에서 가정 경제에 있어서 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보면

첫째, 학생의 취미, 특기, 개성의 신장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설이나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셋째, 학교 밖의 학원 수강을 더 중시하는 학부모의 교육 풍토 해소 방안이 요망된다.

넷째, 사교육비를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의무교육의 이념을 실현시킨다는 차원에서 공교육비로 유입시켜 학부모들의 계층간 위화감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과외 공부를 해소하려면 학교 교육의 충실과 시설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하여 막대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유



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교육의 질 높이고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건전한 의식 형성이 요망된다.

여덟째, 학습교육비 부담과 압박을 덜기 위한 교육 정책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그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은 학교 현장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이 초기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구도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Ⅲ. 資料分析 및 解釋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 해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特技·適性 教育活動에 대한 認識

##### 1)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참여 여부

<표 11> 특기·적성 교육활동 참여 여부 ( )%

| 구분          | 변 인      |           | 예          | 아니오        | 계          |                                              |
|-------------|----------|-----------|------------|------------|------------|----------------------------------------------|
| 학<br>생      | 성별       | 남         | 149(83.71) | 29(16.29)  | 178(100.0) | $\chi^2 = 1.088$<br>$df=1$<br>$p=0.297$      |
|             |          | 여         | 181(87.44) | 26(12.56)  | 207(100.0) |                                              |
|             | 거주지      | 시         | 185(88.52) | 24(11.48)  | 209(100.0) | $\chi^2 = 2.493$<br>$df=1$<br>$p=0.114$      |
|             |          | 읍.면       | 124(82.67) | 26(17.33)  | 150(100.0) |                                              |
| 교<br>사      | 성별       | 남         | 91(65.94)  | 47(34.06)  | 138(100.0) | $\chi^2 = 19.354$<br>$df=1$<br>$p=0.001 ***$ |
|             |          | 여         | 73(41.01)  | 105(58.99) | 178(100.0) |                                              |
|             | 경력       | 10년<br>미만 | 39(41.94)  | 54(58.06)  | 93(100.0)  | $\chi^2 = 5.267$<br>$df=1$<br>$p=0.022 *$    |
|             |          | 10년<br>이상 | 124(56.11) | 97(43.89)  | 221(100.0) |                                              |
|             | 거주지      | 시         | 104(51.74) | 97(48.26)  | 201(100.0) | $\chi^2 = 0.001$<br>$df=1$<br>$p=0.976$      |
|             |          | 읍.면       | 54(51.92)  | 50(48.08)  | 104(100.0) |                                              |
| 학<br>부<br>모 | 관계       | 부         | 55(59.14)  | 38(40.86)  | 93(100.0)  | $\chi^2 = 0.516$<br>$df=1$<br>$p=0.473$      |
|             |          | 모         | 122(63.54) | 70(36.46)  | 192(100.0) |                                              |
|             | 거주지      | 시         | 107(69.48) | 47(30.52)  | 154(100.0) | $\chi^2 = 5.913$<br>$df=1$<br>$p=0.015 *$    |
|             |          | 읍.면       | 84(56.00)  | 66(44.00)  | 150(100.0) |                                              |
|             | 생활<br>수준 | 상         | 2(66.67)   | 1(33.33)   | 3(100.0)   | $\chi^2 = 0.064$<br>$df=2$<br>$p=0.969$      |
|             |          | 중<br>하    | 152(62.04) | 93(37.96)  | 245(100.0) |                                              |

\*  $p<.05$  \*\*\*  $p<.001$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는 교사의 성별( $x^2 = 19.352$ ,  $p < 0.001$ ) 교사의 경력( $x^2 = 5.267$ ,  $p < 0.05$ ), 학부모의 거주지( $x^2 = 5.913$ ,  $p < 0.05$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생들의 성별, 거주지 교사들의 거주지, 학부모의 부모, 생활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 87.44%로 남학생 83.1%보다 높았고, 읍·면지역 학생이 82.6%로 시지역 학생 88.52% 보다 낮았고, 읍·면지역 교사가 82.67%로 시지역 교사 88.52%보다 참여도가 낮았다. 또한 시거주 학부모가 69.48%로 읍면거주 학부모 56.0%보다 높았다.

## 2)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참여 부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했었다면 어떤 부서였습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서는 30여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부서는 남학생의 경우 컴퓨터 30.78%, 영어 10.73%, 축구 8.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컴퓨터 27.07%, 영어 14.36%, 합창 10.4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는 컴퓨터 27.02%, 영어 15.13%, 그리기 8.6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읍면 지역에서는 컴퓨터 31.03%, 영어 9.65%, 종이접기 7.5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서 중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부서로 컴퓨터, 영어 순위로 나타났다.



<표 12> 특기·적성 교육활동 부서

| 구분<br>부서명 | 성 별    |        |        |        | 지 역    |        |        |        | 구분<br>부서명 | 성 별    |        |        |        | 지 역    |        |        |        |
|-----------|--------|--------|--------|--------|--------|--------|--------|--------|-----------|--------|--------|--------|--------|--------|--------|--------|--------|
|           | 남      |        | 여      |        | 도시     |        | 읍면     |        |           | 남      |        | 여      |        | 도시     |        | 읍면     |        |
|           | 빈<br>도 | 비<br>율 | 빈<br>도 | 비<br>율 | 빈<br>도 | 비<br>율 | 빈<br>도 | 비<br>율 |           | 빈<br>도 | 비<br>율 | 빈<br>도 | 비<br>율 | 빈<br>도 | 비<br>율 | 빈<br>도 | 비<br>율 |
| 영어        | 16     | 10.73  | 26     | 14.36  | 28     | 15.13  | 14     | 9.65   | 바둑        | 2      | 1.34   |        |        |        |        | 2      | 1.37   |
| 수학        | 4      | 2.68   | 4      | 2.20   | 6      | 3.24   | 2      | 1.37   | 바이올린      | 2      | 1.34   | 3      | 1.65   | 5      | 2.70   |        |        |
| 과학        | 2      | 1.34   | 2      | 1.10   | 2      | 1.08   |        |        | 플룙        | 2      | 1.34   | 4      | 2.20   | 6      | 3.24   |        |        |
| 한문        | 6      | 4.02   | 4      | 2.20   | 7      | 3.78   | 3      | 2.06   | 사물놀이      | 3      | 2.01   | 8      | 4.41   | 6      | 3.24   | 5      | 3.44   |
| 글짓기       | 8      | 5.36   | 8      | 4.41   | 10     | 5.40   | 6      | 4.13   | 신문        | 5      | 3.35   | 2      | 1.10   | 6      | 3.24   | 1      | 0.68   |
| 웅변        |        |        | 2      | 1.10   | 2      | 1.08   |        |        | 축구        | 13     | 8.72   |        |        | 4      | 2.16   | 9      | 6.20   |
| 서예        | 3      | 2.01   | 4      | 2.20   | 5      | 2.70   | 2      | 1.37   | 배드민턴      | 7      | 4.69   | 3      | 1.65   | 4      | 2.16   | 6      | 4.13   |
| 컴퓨터       | 46     | 30.87  | 49     | 27.07  | 50     | 27.02  | 45     | 31.03  | 테니스       | 3      | 2.01   | 2      | 1.10   |        |        | 5      | 3.44   |
| 종이접기      | 5      | 3.35   | 15     | 8.28   | 9      | 4.86   | 11     | 7.58   | 태권도       | 3      | 2.01   |        |        |        |        | 3      | 2.06   |
| 그리기       | 7      | 4.69   | 13     | 7.18   | 16     | 8.64   | 5      | 3.44   | 기타        | 12     | 8.05   | 10     | 5.52   | 6      | 8.64   | 6      | 4.13   |
| 무용        |        |        | 3      | 1.65   | 2      | 1.08   | 1      | 0.68   |           |        |        |        |        |        |        |        |        |
| 합창        |        |        | 19     | 10.49  | 14     | 7.56   | 4      | 2.75   | 계         | 149    | 100    | 181    | 100    | 185    | 100    | 145    | 100    |

### 3) 특기·적성 교육활동 장소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의 일반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학생들이 참여했던 장소를 보면 일반교실, 특별실 순이고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볼 때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chi^2 = 19.681$ ,  $p < .001$ ) 학생들의 거주지에 따른 참여 장소는 시지역 일반교실 51.87%, 특별실 35.29% 순이고, 읍면지역 일반교실 67.65%, 운동장 12.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으로 볼 때 ( $\chi^2 = 21.740$ ,  $p < .001$ )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의 경우 일반교실, 운동장 순이었으며 남녀 교사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 ( $\chi^2 = 22.111$ ,  $p = .001$ )를 보였다. 남 교사는 주로 활동적인 부서로 특별실과 운동장에서 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이나 거주지 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지역 15.25%이 읍·면지역 9.46%보다



운동장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많이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특기·적성 교육활동 장소 ( )%

| 구분     | 변 인 |           | 학교의<br>일반교실 | 특별실       | 운동장       | 기타      | 계          |                                          |
|--------|-----|-----------|-------------|-----------|-----------|---------|------------|------------------------------------------|
| 학<br>생 | 성별  | 남         | 78(50.00)   | 42(26.92) | 31(19.87) | 5(3.21) | 156(100.0) | $\chi^2 = 19.681$<br>df=3<br>p=0.001***  |
|        |     | 여         | 126(67.02)  | 45(23.94) | 10(5.32)  | 7(3.72) | 188(100.0) |                                          |
|        | 거주지 | 시         | 97(51.87)   | 66(35.29) | 19(10.16) | 5(5.67) | 187(100.0) | $\chi^2 = 21.740$<br>df=3<br>p=0.001***  |
|        |     | 읍.면       | 92(67.65)   | 17(12.50) | 21(15.44) | 6(4.41) | 136(100.0) |                                          |
| 교<br>사 | 성별  | 남         | 66(60.00)   | 17(15.45) | 24(21.12) | 3(2.73) | 110(100.0) | $\chi^2 = 22.111$<br>df=3<br>p=0.001 *** |
|        |     | 여         | 87(87.88)   | 6(6.06)   | 4(4.04)   | 2(2.02) | 99(100.0)  |                                          |
|        | 경력  | 10년<br>미만 | 35(61.40)   | 9(15.79)  | 10(17.54) | 3(5.26) | 57(100.0)  | $\chi^2 = 6.227$<br>df=3<br>p=0.101      |
|        |     | 10년<br>이상 | 116(76.82)  | 15(9.93)  | 18(11.92) | 2(1.32) | 151(100.0) |                                          |
|        | 거주지 | 시         | 92(72.44)   | 12(9.45)  | 20(15.25) | 3(2.36) | 127(100.0) | $\chi^2 = 3.196$<br>df=3<br>p=0.362      |
|        |     | 읍.면       | 53(71.62)   | 12(16.22) | 7(9.46)   | 2(2.70) | 74(100.0)  |                                          |

\*\*\* p<.001

#### 4) 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참여 희망 여부

“앞으로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전제적으로 학생 학부모 모두 학교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시키겠다고 하였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학생의 성별에서 남학생의 경우 ‘상황을 보며 참여하겠다.’ 33.90%, ‘적극 참여하겠다.’ 31.6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상황을 보며 참여하겠다.’ 36.41%, ‘적극 참여하겠다.’ 32.52%로 나타나 ( $\chi^2 = 13.807$ ,  $p < .01$ )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부모의 시거주지에서는 ‘부모님이나 아이가 원하면 참여’ 41.72%, 읍면지역에서는 ‘상황을 보며 참여하겠다.’ 38.26% ‘적극 참여’ 30.87% 순으로 나타나 학부



모의 거주지( $x^2 = 7.849$ ,  $p = .05$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생의 거주지, 부모관계, 생활수준 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읍·면지역 보다는 시지역 학생이 시거주지 학부모보다는 읍·면 거주지 학부모가 적극 참여시키겠다고 하였다.

<표 14> 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참여 희망 여부 ( )%

| 구분  | 변인   |     | 적극참여<br>하겠다 | 상황을<br>보며<br>참여하겠<br>다 | 선생님이<br>권유하면<br>참여<br>하겠다 | 부모님이나<br>아이가<br>원하면<br>참여 | 전혀<br>참여하지<br>않겠다 | 계          |                                      |
|-----|------|-----|-------------|------------------------|---------------------------|---------------------------|-------------------|------------|--------------------------------------|
| 학생  | 성별   | 남   | 56(31.64)   | 60(33.90)              | 5(2.82)                   | 36(20.34)                 | 20(11.30)         | 177(100.0) | $x^2 = 13.807$<br>df=4<br>p=0.008 ** |
|     |      | 여   | 67(32.52)   | 75(36.41)              | 1(0.49)                   | 56(27.18)                 | 7(3.40)           | 206(100.0) |                                      |
|     | 거주지  | 시   | 78(37.68)   | 72(34.78)              | 2(0.97)                   | 43(20.77)                 | 12(5.80)          | 207(100.0) | $x^2 = 7.304$<br>df=4<br>p=0.121     |
|     |      | 읍·면 | 39(25.66)   | 55(36.18)              | 2(1.32)                   | 46(30.26)                 | 10(6.58)          | 152(100.0) |                                      |
| 학부모 | 관계   | 부   | 25(28.09)   | 35(39.33)              | 1(1.12)                   | 28(31.46)                 |                   | 89(100.0)  | $x^2 = 1.689$<br>df=3<br>p=0.639     |
|     |      | 모   | 46(24.21)   | 67(35.26)              | 2(1.05)                   | 75(39.47)                 |                   | 190(100.0) |                                      |
|     | 거주지  | 시   | 29(19.21)   | 56(37.09)              | 3(1.99)                   | 63(41.72)                 |                   | 151(100.0) | $x^2 = 7.849$<br>df=3<br>p=0.049 *   |
|     |      | 읍·면 | 46(30.87)   | 57(38.26)              | 1(0.67)                   | 45(30.20)                 |                   | 149(100.0) |                                      |
|     | 생활수준 | 상   | 2(66.67)    | 1(33.33)               | 0(0.00)                   | 0(0.00)                   |                   | 3(100.0)   | $x^2 = 8.950$<br>df=6<br>p=0.176     |
|     |      | 중   | 58(24.27)   | 96(40.17)              | 4(1.67)                   | 81(33.89)                 |                   | 239(100.0) |                                      |
|     |      | 하   | 15(26.32)   | 15(26.32)              | 0(0.00)                   | 27(47.37)                 |                   | 57(100.0)  |                                      |

\*  $p < .05$     \*\*  $p < .01$

##### 5) 소질·적성 계발에 도움의 정도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소질과 적성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과 같다. 교사, 학부모, 모두 특기·적성 활동이 학생들의 소질·적성 계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교사의 성별, 거주지, 학부모의 부모



관계, 거주지, 생활수준 사이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여교사 45.88%, 시거주지 교사 48.99%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남교사, 읍면지역의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 부모, 거주지, 생활수준에 관계 없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표 15> 소질·적성 계발에 도움 정도 ( )%

| 구분          | 변 인  |     | 많은<br>도움이<br>됨 | 조금<br>도움이<br>됨 | 별로<br>도움이<br>안됨 | 도움이<br>되지<br>않음 | 계          |                                     |
|-------------|------|-----|----------------|----------------|-----------------|-----------------|------------|-------------------------------------|
| 교<br>사      | 성별   | 남   | 68(41.98)      | 69(42.59)      | 19(11.73)       | 6(3.70)         | 162(100.0) | $\chi^2 = 1.347$<br>df=3<br>p=0.718 |
|             |      | 여   | 89(45.88)      | 71(36.60)      | 26(13.40)       | 8(4.12)         | 194(100.0) |                                     |
|             | 거주지  | 시   | 97(48.99)      | 72(36.36)      | 22(11.11)       | 7(3.54)         | 198(100.0) | $\chi^2 = 4.886$<br>df=3<br>p=0.180 |
|             |      | 읍.면 | 50(37.04)      | 58(42.96)      | 20(14.81)       | 7(5.19)         | 135(100.0) |                                     |
| 학<br>부<br>모 | 관계   | 부   | 25(29.41)      | 43(50.59)      | 12(14.12)       | 5(5.88)         | 85(100.0)  | $\chi^2 = 0.663$<br>df=3<br>p=0.882 |
|             |      | 모   | 46(26.29)      | 92(52.57)      | 29(16.57)       | 8(4.57)         | 175(100.0) |                                     |
|             | 거주지  | 시   | 34(24.11)      | 76(53.90)      | 24(17.02)       | 7(4.96)         | 141(100.0) | $\chi^2 = 0.644$<br>df=3<br>p=0.886 |
|             |      | 읍.면 | 39(28.26)      | 71(51.45)      | 22(15.94)       | 6(4.35)         | 138(100.0) |                                     |
|             | 생활수준 | 상   | 1(33.33)       | 2(66.67)       | 0(0.00)         | 0(0.00)         | 3(100.0)   | $\chi^2 = 1.746$<br>df=6<br>p=0.942 |
|             |      | 중   | 60(27.27)      | 112(50.91)     | 37(16.82)       | 11(5.00)        | 220(100.0) |                                     |
|             |      | 하   | 12(22.22)      | 31(57.41)      | 9(16.67)        | 2(3.70)         | 54(100.0)  |                                     |

#### 6) 특기·적성 교육활동 강사 선택의 적정성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분야 선택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특기·적성 교육활동 선택은 학생과 부모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교사의 성별( $\chi^2$



=13.877,  $p<0.05$ ) 경력( $x^2 =15.832$ ,  $p<0.01$ ) 학부모의 부모관계( $x^2 =30.535$ ,  $p<0.001$ ) 생활수준( $x^2 =28.045$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생의 성별, 거주지, 교사, 학부모 모두 거주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는 대부분 부모와 나를 선택하고 어머니인 경우 40.63%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생활수준이 상인 경우 선생님과 부모의 의견을 각각 33.33%정도가 중요시하였다.

<표 16> 특기·적성 교육활동 선택의 적정성 ( )%

| 구분  | 변인   |       | 선생님     | 나        | 부모       | 부모와 나     | 선생님과 나   | 선생님과 부모  | 계         |                                     |
|-----|------|-------|---------|----------|----------|-----------|----------|----------|-----------|-------------------------------------|
| 학생  | 성별   | 남     | 2(116)  | 48(27.5) | 21(1214) | 89(5145)  | 4(231)   | 9(520)   | 173(1000) | $x^2 =6.934$<br>df=5<br>p=0.226     |
|     |      | 여     | 6(298)  | 44(2146) | 16(780)  | 127(6195) | 49(195)  | 8(390)   | 205(1000) |                                     |
|     | 거주지  | 시     | 7(341)  | 55(2683) | 15(732)  | 115(5610) | 3(146)   | 10(488)  | 205(1000) | $x^2 =7.531$<br>df=5<br>p=0.184     |
|     |      | 읍.면   | 1(067)  | 31(2067) | 17(1133) | 90(6000)  | 5(333)   | 6(400)   | 150(1000) |                                     |
| 교사  | 성별   | 남     | 5(370)  | 37(2741) | 9(1667)  | 48(3536)  | 25(1852) | 11(815)  | 135(1000) | $x^2 =13.877$<br>df=5<br>p=0.016 *  |
|     |      | 여     | 1(058)  | 55(3179) | 8(462)   | 84(4835)  | 19(1098) | 6(347)   | 173(1000) |                                     |
|     | 경력   | 10년미만 | 2(220)  | 39(486)  | 3(330)   | 39(4286)  | 7(769)   | 1(110)   | 91(1000)  | $x^2 =15.832$<br>df=5<br>p=0.007**  |
|     |      | 10년이상 | 4(185)  | 54(2500) | 14(588)  | 98(4305)  | 36(1667) | 15(694)  | 216(1000) |                                     |
| 학부모 | 거주지  | 시     | 3(153)  | 60(3061) | 9(459)   | 87(4439)  | 23(1173) | 14(714)  | 196(1000) | $x^2 =8.150$<br>df=5<br>p=0.148     |
|     |      | 읍.면   | 2(196)  | 30(2941) | 7(686)   | 43(4216)  | 19(1863) | 1(098)   | 102(1000) |                                     |
|     | 관계   | 부     | 4(435)  | 19(2065) | 6(652)   | 32(3478)  | 18(1957) | 13(1413) | 92(1000)  | $x^2 =30.535$<br>df=5<br>p=0.001*** |
|     |      | 모     | 2(104)  | 78(4063) | 7(365)   | 75(3905)  | 27(1406) | 3(156)   | 192(1000) |                                     |
| 학부모 | 거주지  | 시     | 1(065)  | 55(3571) | 3(195)   | 63(4091)  | 20(1299) | 12(779)  | 154(1000) | $x^2 =9.7187$<br>df=5<br>p=0.084    |
|     |      | 읍.면   | 4(2680) | 46(3087) | 9(604)   | 55(3691)  | 29(1946) | 6(403)   | 149(1000) |                                     |
|     | 생활수준 | 상     | 1(333)  | 0(000)   | 1(333)   | 0(000)    | 1(133)   | 0(000)   | 3(1000)   | $x^2 =28.045$<br>df=10<br>p=0.002** |
|     |      | 중     | 5(207)  | 85(3512) | 10(413)  | 91(3760)  | 37(1529) | 14(579)  | 242(1000) |                                     |
|     |      | 하     | 0(000)  | 16(2807) | 1(175)   | 24(4211)  | 12(2105) | 4(702)   | 57(1000)  |                                     |

\*  $p<.05$  \*\*  $p<.01$  \*\*\*  $p<.001$



7)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지도자 선호

<표 17>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지도자 선호 ( )%

| 구분          | 변 인      |           | 학교선생님      | 학부모       | 전문강사       | 지역인사      | 계          |                                         |
|-------------|----------|-----------|------------|-----------|------------|-----------|------------|-----------------------------------------|
| 학<br>생      | 성별       | 남         | 112(70.44) | 2(1.26)   | 43(27.04)  | 2(1.26)   | 159(100.0) | $\chi^2 = 4.143$<br>df=3<br>p=0.246     |
|             |          | 여         | 124(66.31) | 0(0.00)   | 62(33.16)  | 1(0.53)   | 187(100.0) |                                         |
|             | 거주<br>지  | 시         | 114(60.32) | 2(1.06)   | 72(38.10)  | 1(0.53)   | 189(100.0) | $\chi^2 = 13.706$<br>df=3<br>p=0.003**  |
|             |          | 읍.면       | 106(77.94) | 0(0.00)   | 28(20.59)  | 2(1.47)   | 136(100.0) |                                         |
| 교<br>사      | 성별       | 남         | 30(22.73)  | 0(0.00)   | 98(74.24)  | 4(3.030)  | 132(100.0) | $\chi^2 = 18.800$<br>df=3<br>p=0.001*** |
|             |          | 여         | 10(5.92)   | 1(0.59)   | 152(89.94) | 6(3.55)   | 169(100.0) |                                         |
|             | 경력       | 10년<br>미만 | 11(12.22)  | 0(0.00)   | 74(82.22)  | 5(5.56)   | 90(100.0)  | $\chi^2 = 2.462$<br>df=3<br>p=0.482     |
|             |          | 10년<br>이상 | 29(13.81)  | 1(0.48)   | 175(83.33) | 5(2.38)   | 210(100.0) |                                         |
|             | 거주<br>지  | 시         | 30(15.63)  | 1(0.52)   | 154(80.21) | 7(3.65)   | 192(100.0) | $\chi^2 = 3.133$<br>df=3<br>p=0.372     |
|             |          | 읍.면       | 9(9.09)    | 0(0.00)   | 87(87.88)  | 3(3.03)   | 99(100.0)  |                                         |
| 학<br>부<br>모 | 관계       | 부         | 21(23.86)  | 2(2.27)   | 61(69.32)  | 4(4.55)   | 88(100.0)  | $\chi^2 = 3.127$<br>df=3<br>p=0.372     |
|             |          | 모         | 36(19.25)  | 4(2.14)   | 144(77.01) | 39(1.60)  | 187(100.0) |                                         |
|             | 거주<br>지  | 시         | 38(24.84)  | 2(1.31)   | 111(72.55) | 2(1.31)   | 153(100.0) | $\chi^2 = 2.682$<br>df=3<br>p=0.443     |
|             |          | 읍.면       | 28(19.86)  | 3(2.13)   | 105(74.47) | 5(3.55)   | 141(100.0) |                                         |
|             | 생활<br>수준 | 상         | 0(0.00)    | 0(0.00)   | 1(50.00)   | 1(50.00)  | 2(100.0)   | $\chi^2 = 24.579$<br>df=6<br>p=0.001**  |
|             |          | 중         | 48(20.34)  | 5(2.12)   | 177(75.00) | 6(2.54)   | 236(100.0) |                                         |
| 하           |          | 17(30.91) | 0(0.00)    | 38(69.09) | 0(0.00)    | 55(100.0) |            |                                         |

\*\* p<.01 \*\*\* p<.001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담당하여 지도했던 분은 누구였습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학생들은 지도자로 학교 선생임을 선호하였고, 교사, 학부모는 전문강사를 선호하였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생들의 거주지 ( $\chi^2 = 13.706$ ,  $p < 0.001$ ) 교사의 성별( $\chi^2 = 18.800$ ,  $p < 0.001$ ), 학부모의 생활수준 ( $\chi^2 = 24.579$ ,  $p < 0.001$ ) 에는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학생의 성별, 교사의 경력, 거주지, 학부모의 부모관계, 거주지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가 없었다.



교사, 학부모도 거주지가 읍면지역인 경우 전문강사를 더 선호하였으며 여교사 89.94%가 남교사 74.24%보다 전문강사를 선호하였다.

#### 8) 특기·적성 교육활동 적당한 시간수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주당 시간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습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주당 2-3시간을 원하고 있다.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교사의 거주지 ( $\chi^2 = 14.019$ ,  $p < .05$ ) 학부모의 부모관계( $\chi^2 = 10.720$ ,  $p < .05$ ) 거주지( $\chi^2 = 17.892$ ,  $p < .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생, 교사의 성별, 경력, 학부모의 생활수준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읍면거주 학생은 45.07%가 주당 1시간을 학부모 생활수준이 상인 경우 66.67%가 주당 4-5시간을 선호하였다.

<표 18> 특기·적성 활동 적정 주당 시간 수 ( )%

| 구분          | 변 인      |           | 주당<br>1시간           | 주당<br>2-3시간             | 주당<br>4-5시간            | 주당<br>6-7시간         | 주당<br>8시간이상        | 계                       |                                         |
|-------------|----------|-----------|---------------------|-------------------------|------------------------|---------------------|--------------------|-------------------------|-----------------------------------------|
| 학<br>생      | 성별       | 남         | 58(36.02)           | 66(40.99)               | 24(14.91)              | 9(5.59)             | 4(2.48)            | 161(100.0)              | $\chi^2 = 5.008$<br>df=4<br>p=0.286     |
|             |          | 여         | 65(32.34)           | 102(50.75)              | 24(11.94)              | 5(2.49)             | 5(2.49)            | 201(100.0)              |                                         |
|             | 거주<br>지  | 시         | 49(24.75)           | 98(49.49)               | 38(19.19)              | 7(3.54)             | 6(3.03)            | 198(100.0)              | $\chi^2 = 21.460$<br>df=4<br>p=0.001    |
|             |          | 읍.면       | 64(45.07)           | 60(42.25)               | 9(6.34)                | 6(4.23)             | 3(2.11)            | 142(100.0)              |                                         |
| 교<br>사      | 성별       | 남         | 14(11.02)           | 93(73.23)               | 19(14.96)              | 1(0.79)             | 0(0.00)            | 127(100.0)              | $\chi^2 = 1.587$<br>df=2<br>p=0.662     |
|             |          | 여         | 20(11.69)           | 120(70.17)              | 28(16.37)              | 2(1.16)             | 1(0.58)            | 204(100.0)              |                                         |
|             | 경력       | 10년<br>미만 | 10(12.66)           | 63(79.95)               | 6(7.59)                | 0(0.00)             | 0(0.00)            | 79(100.0)               | $\chi^2 = 2.886$<br>df=3<br>p=0.409     |
|             |          | 10년<br>이상 | 24(11.76)           | 150(73.53)              | 28(13.73)              | 2(0.98)             | 0(0.00)            | 204(100.0)              |                                         |
|             | 거주<br>지  | 시         | 13(7.30)            | 139(78.09)              | 26(14.61)              | 0(0.00)             | 0(0.00)            | 178(100.0)              | $\chi^2 = 14.019$<br>df=3<br>p=0.03 *   |
|             |          | 읍.면       | 18(18.75)           | 69(71.88)               | 7(7.29)                | 2(2.08)             | 0(0.00)            | 96(100.0)               |                                         |
| 학<br>부<br>모 | 관계       | 부         | 9(10.34)            | 36(41.38)               | 34(39.08)              | 6(6.90)             | 2(2.30)            | 87(100.0)               | $\chi^2 = 10.720$<br>df=4<br>p=0.030 *  |
|             |          | 모         | 18(10.11)           | 104(58.34)              | 48(26.97)              | 8(4.49)             | 0(0.00)            | 178(100.0)              |                                         |
|             | 거주<br>지  | 시         | 9(6.43)             | 79(56.43)               | 49(35.00)              | 1(0.71)             | 2(1.43)            | 140(100.0)              | $\chi^2 = 17.892$<br>df=4<br>p=0.001*** |
|             |          | 읍.면       | 20(14.93)           | 71(51.08)               | 36(25.90)              | 12(8.63)            | 0(0.00)            | 139(100.0)              |                                         |
|             | 생활<br>수준 | 상         | 0(0.00)             | 1(33.33)                | 2(66.67)               | 0(0.00)             | 0(0.00)            | 3(100.0)                | $\chi^2 = 6.861$<br>df=8<br>p=0.552     |
|             |          | 중<br>하    | 20(9.01)<br>(16.36) | 122(54.95)<br>28(50.91) | 67(30.18)<br>16(29.09) | 12(5.41)<br>1(1.82) | 1(0.45)<br>1(1.82) | 222(100.0)<br>55(100.0) |                                         |

\*  $p < .05$  \*\*\*  $p < .001$



## 2.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私教育費 負擔과 教育內容에 대한 認識

### 1) 사교육비 부담에 도움 여부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교사 학부모 모두 특기·적성 활동이 사교육비 부담에 조금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교사의 거주지( $x^2 = 13.157$ ,  $p < .05$ ) 학부모의 거주지( $x^2 = 9.732$ ,  $p < .05$ ) 생활수준( $x^2 = 15.063$ ,  $p < .05$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교사의 성별, 경력, 학부모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부모의 생활수준이 상인 경우 66.67%가 많은 도움이 있었음이 나타났다.

<표 19> 사교육비 부담에 도움 여부 ( )%

| 구분          | 변 인      |           | 많은<br>도움  | 조금<br>도움  | 별로<br>도움이<br>안됨 | 도움이<br>안됨 | 계          |                                     |
|-------------|----------|-----------|-----------|-----------|-----------------|-----------|------------|-------------------------------------|
| 교<br>사      | 성별       | 남         | 30(23.44) | 56(43.75) | 34(26.56)       | 8(6.25)   | 128(100.0) | $x^2 = 7.631$<br>df=3<br>p=0.054    |
|             |          | 여         | 26(16.05) | 65(40.12) | 46(28.40)       | 25(15.43) | 162(100.0) |                                     |
|             | 경력       | 10년<br>미만 | 42(20.49) | 82(40.00) | 59(28.78)       | 22(10.73) | 205(100.0) | $x^2 = 2.553$<br>df=3<br>p=0.466    |
|             |          | 10년<br>이상 | 13(15.48) | 39(46.43) | 20(23.81)       | 12(14.29) | 84(100.0)  |                                     |
|             | 거주지      | 시         | 45(24.59) | 76(41.53) | 49(26.78)       | 13(7.10)  | 183(100.0) | $x^2 = 13.157$<br>df=3<br>p=0.04 *  |
|             |          | 읍.면       | 10(10.31) | 42(43.30) | 28(28.87)       | 17(17.53) | 97(100.0)  |                                     |
| 학<br>부<br>모 | 관계       | 부         | 26(29.55) | 34(38.64) | 21(23.86)       | 7(7.95)   | 88(100.0)  | $x^2 = 3.075$<br>df=3<br>p=0.380    |
|             |          | 모         | 36(20.22) | 80(44.94) | 49(27.53)       | 13(7.30)  | 178(100.0) |                                     |
|             | 거주지      | 시         | 33(22.76) | 56(38.62) | 39(26.90)       | 17(11.72) | 145(100.0) | $x^2 = 9.732$<br>df=3<br>p=0.021 *  |
|             |          | 읍.면       | 31(21.99) | 70(48.65) | 36(25.53)       | 4(2.84)   | 141(100.0) |                                     |
|             | 생활<br>수준 | 상         | 2(66.67)  | 1(33.33)  | 0(0.00)         | 0(0.00)   | 3(100.0)   | $x^2 = 15.063$<br>df=6<br>p=0.020 * |
|             |          | 중         | 48(21.15) | 92(40.53) | 67(29.52)       | 20(8.81)  | 227(100.0) |                                     |
|             |          | 하         | 16(29.09) | 31(56.36) | 7(12.73)        | 1(1.82)   | 55(100.0)  |                                     |

\*  $p < .05$



## 2)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부담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교사는 수익자 부담쪽에 학부모는 수익자와 국가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학부모의 생활수준 ( $\chi^2 = 15.16$ ,  $p < .01$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교사의 성별, 경력, 거주지, 학부모의 부모관계, 거주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경우 경력 10년미만 51.85%보다는 10년이상 64.88%의 교사가 수익자 부담원칙을 바라고 있고 학부모는 생활수준이 상인 경우 66.67%가 수익자 부담을 생활수준이 하인 경우 48.00%가 국가 부담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0>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부담 ( )%

| 구분          | 변 인      |           | 수익자<br>부담  | 국가 부담     | 수익자.국가<br>반씩 | 계          |                                            |
|-------------|----------|-----------|------------|-----------|--------------|------------|--------------------------------------------|
| 교<br>사      | 성별       | 남         | 84(65.63)  | 14(10.94) | 30(23.44)    | 128(100.0) | $\chi^2 = 3.379$<br>df=2<br>p=0.185        |
|             |          | 여         | 91(57.23)  | 15(9.43)  | 53(33.33)    | 159(100.0) |                                            |
|             | 경력       | 10년<br>미만 | 42(51.85)  | 10(12.35) | 29(35.80)    | 81(100.0)  | $\chi^2 = 4.157$<br>df=2<br>p=0.125        |
|             |          | 10년<br>이상 | 133(64.88) | 19(9.27)  | 53(25.85)    | 205(100.0) |                                            |
|             | 거주지      | 시         | 105(58.33) | 21(11.67) | 54(30.00)    | 180(100.0) | $\chi^2 = 1.703$<br>df=2<br>p=0.427        |
|             |          | 읍.면       | 64(65.98)  | 8(8.25)   | 25(25.77)    | 97(100.0)  |                                            |
| 학<br>부<br>모 | 관계       | 부         | 17(19.54)  | 30(34.48) | 40(45.98)    | 87(100.0)  | $\chi^2 = 2.810$<br>df=2<br>p=0.245        |
|             |          | 모         | 31(18.67)  | 42(25.30) | 93(56.02)    | 166(100.0) |                                            |
|             | 거주지      | 시         | 19(14.07)  | 47(34.81) | 69(51.11)    | 135(100.0) | $\chi^2 = 5.700$<br>df=2<br>p=0.058 *      |
|             |          | 읍.면       | 30(22.90)  | 31(23.66) | 70(53.44)    | 131(100.0) |                                            |
|             | 생활<br>수준 | 상         | 2(66.67)   | 0(0.00)   | 1(33.33)     | 3(100.0)   | $\chi^2 = 15.16$<br>2<br>df=4<br>p=0.004** |
|             |          | 중         | 41(19.61)  | 54(25.23) | 119(55.61)   | 214(100.0) |                                            |
|             |          | 하         | ~912.00)   | 24(48.00) | 20(40.00)    | 50(100.0)  |                                            |

\*  $p < .05$  \*\*  $p < .01$



### 3)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선호 분야

<표 21>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선호 분야 ( )%

| 구분  | 변인   |           | 영어 등 언어신장 | 국어,수학 등 학습에 도움 | 서예,바둑 등 취미 | 태권도 등 운동  | 피아노,미술 등 기능발전 | 기타        | 계          |                                         |
|-----|------|-----------|-----------|----------------|------------|-----------|---------------|-----------|------------|-----------------------------------------|
| 학생  | 성별   | 남         | 19(11.24) | 30(17.75)      | 35(20.71)  | 39(23.08) | 13(7.69)      | 33(19.53) | 169(100.0) | $\chi^2 = 61.794$<br>df=5<br>p=0.001*** |
|     |      | 여         | 23(11.62) | 38(19.19)      | 25(12.63)  | 13(6.57)  | 77(38.89)     | 22(11.11) | 198(100.0) |                                         |
|     | 거주지  | 시         | 21(10.34) | 46(22.66)      | 34(16.75)  | 18(8.87)  | 54(26.60)     | 30(14.78) | 208(100.0) | $\chi^2 = 13.416$<br>df=5<br>p=0.020 *  |
|     |      | 읍·면       | 20(14.18) | 17(12.06)      | 23(16.31)  | 27(19.15) | 32(22.70)     | 22(15.60) | 141(100.0) |                                         |
| 교사  | 성별   | 남         | 7(5.51)   | 10(7.87)       | 55(43.31)  | 7(5.51)   | 38(29.92)     | 10(7.87)  | 127(100.0) | $\chi^2 = 14.287$<br>df=5<br>p=0.014 ** |
|     |      | 여         | 16(11.03) | 2(1.38)        | 82(56.55)  | 7(4.83)   | 31(21.38)     | 7(4.83)   | 145(100.0) |                                         |
|     | 경력   | 10년 미만    | 5(6.02)   | 2(2.41)        | 38(45.78)  | 7(8.43)   | 25(30.12)     | 6(7.23)   | 83(100.0)  | $\chi^2 = 6.085$<br>df=5<br>p=0.298     |
|     |      | 10년 이상    | 18(9.57)  | 10(5.32)       | 98(52.13)  | 7(3.72)   | 44(23.40)     | 11(5.85)  | 188(100.0) |                                         |
|     | 거주지  | 시         | 15(8.93)  | 7(4.17)        | 86(52.19)  | 11(6.55)  | 42(25.00)     | 7(4.17)   | 168(100.0) | $\chi^2 = 5.462$<br>df=5<br>p=0.362     |
|     |      | 읍·면       | 7(7.22)   | 5(5.15)        | 47(48.45)  | 3(3.09)   | 25(25.77)     | 10(10.31) | 97(100.0)  |                                         |
| 학부모 | 관계   | 부         | 16(20.25) | 16(20.25)      | 19(24.05)  | 8(10.13)  | 15(18.99)     | 5(6.33)   | 79(100.0)  | $\chi^2 = 9.097$<br>df=5<br>p=0.105     |
|     |      | 모         | 38(21.59) | 24(13.64)      | 59(33.52)  | 5(2.84)   | 36(20.45)     | 14(7.95)  | 176(100.0) |                                         |
|     | 거주지  | 시         | 28(20.90) | 22(16.42)      | 37(27.61)  | 7(5.22)   | 29(21.64)     | 11(8.21)  | 134(100.0) | $\chi^2 = 2.179$<br>df=5<br>p=0.824     |
|     |      | 읍·면       | 35(25.00) | 24(17.14)      | 41(29.29)  | 5(3.57)   | 28(20.00)     | 7(5.00)   | 140(100.0) |                                         |
|     | 생활수준 | 상         | 1(33.33)  | 0(0.00)        | 2(66.67)   | 0(0.00)   | 0(0.00)       | 0(0.00)   | 3(100.0)   | $\chi^2 = 5.053$<br>df=10<br>p=0.888    |
|     |      | 중         | 48(22.02) | 35(16.06)      | 64(29.36)  | 11(5.05)  | 46(21.10)     | 14(6.42)  | 218(100.0) |                                         |
| 하   |      | 14(27.45) | 10(19.61) | 14(27.45)      | 1(1.96)    | 9(17.65)  | 3(5.88)       | 51(100.0) |            |                                         |

\* p<.05    \*\* p<.01    \*\*\* p<.001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내용에는 어떤 분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남학생은 태권도등, 운동에 23.08%가 여학생은 피아노, 미술 발전 분야에 38.89%가 선호하였다. 남녀학생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 $\chi^2 = 61.794$ ,  $p < .001$ )를 보였으며 거주지 ( $\chi^2 = 13.416$ ,  $p < .05$ ) 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사는 남교사 43.31%,



여교사 56.55%가 경력, 거주에 관계없이 학부모의 경우 부모관계, 거주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서예, 바둑 등 취미 분야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 4)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설 학원과의 내용 비교 수준

<표 22>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사설학원과의 내용 비교 ( )%

| 구분  | 변인   |           | 수준이<br>매우<br>높다 | 수준이<br>조금<br>높다 | 비슷하다       | 수준이<br>조금<br>낮다 | 수준이<br>매우<br>낮다 | 계          |                                        |
|-----|------|-----------|-----------------|-----------------|------------|-----------------|-----------------|------------|----------------------------------------|
| 학생  | 성별   | 남         | 16(9.47)        | 42(24.85)       | 81(47.93)  | 21(12.43)       | 9(5.33)         | 169(100.0) | $\chi^2 = 7.156$<br>df=4<br>p=0.128    |
|     |      | 여         | 24(12.31)       | 40(20.51)       | 93(47.69)  | 35(17.95)       | 3(1.54)         | 195(100.0) |                                        |
|     | 거주지  | 시         | 24(12.00)       | 37(18.50)       | 103(51.50) | 28(14.00)       | 8(4.00)         | 200(100.0) | $\chi^2 = 4.616$<br>df=4<br>p=0.329    |
|     |      | 읍·면       | 14(9.86)        | 37(26.06)       | 64(45.07)  | 24(16.90)       | 3(2.11)         | 142(100.0) |                                        |
| 교사  | 성별   | 남         | 4(2.96)         | 23(17.04)       | 70(51.85)  | 32(23.70)       | 6(4.44)         | 135(100.0) | $\chi^2 = 9.016$<br>df=4<br>p=0.061    |
|     |      | 여         | 2(1.19)         | 28(16.67)       | 68(40.48)  | 65(38.69)       | 5(2.98)         | 168(100.0) |                                        |
|     | 경력   | 10년<br>미만 | 3(3.30)         | 15(16.48)       | 41(45.05)  | 30(32.97)       | 2(2.20)         | 91(100.0)  | $\chi^2 = 2.918$<br>df=4<br>p=0.572    |
|     |      | 10년<br>이상 | 2(0.95)         | 36(17.06)       | 97(45.97)  | 67(31.75)       | 9(4.27)         | 211(100.0) |                                        |
|     | 거주지  | 시         | 3(1.53)         | 23(11.73)       | 95(48.47)  | 68(34.69)       | 7(3.57)         | 196(100.0) | $\chi^2 = 11.199$<br>df=4<br>p=0.024 * |
|     |      | 읍·면       | 2(2.06)         | 26(28.80)       | 39(40.21)  | 26(26.80)       | 4(4.12)         | 97(100.0)  |                                        |
| 학부모 | 관계   | 부         | 4(4.55)         | 15(17.05)       | 49(55.68)  | 18(20.45)       | 2(2.27)         | 88(100.0)  | $\chi^2 = 6.335$<br>df=4<br>p=0.175    |
|     |      | 모         | 3(1.68)         | 17(9.50)        | 105(58.66) | 51(28.49)       | 3(1.68)         | 179(100.0) |                                        |
|     | 거주지  | 시         | 5(3.52)         | 14(9.86)        | 85(59.86)  | 34(23.94)       | 4(2.82)         | 142(100.0) | $\chi^2 = 1.726$<br>df=4<br>p=0.786    |
|     |      | 읍·면       | 3(2.10)         | 18(12.59)       | 84(58.74)  | 36(25.17)       | 2(1.40)         | 143(100.0) |                                        |
|     | 생활수준 | 상         | 0(0.00)         | 1(33.33)        | 2(66.66)   | 0(0.00)         | 0(0.00)         | 3(100.0)   | $\chi^2 = 3.911$<br>df=8<br>p=0.865    |
|     |      | 중<br>하    | 7(3.08)         | 25(11.01)       | 130(57.27) | 60(26.43)       | 5(2.20)         | 227(100.0) |                                        |

\* p<.05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설학원에서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



사한 결과는 <표 22>과 같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사설학원과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교사의 거주지( $\chi^2 = 11.19$ ,  $p < .05$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생의 성별, 거주지, 교사의 성별, 경력, 학부모의 부모관계, 거주지, 생활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설학원과 비슷하다는 면에 학생은 남학생 47.93%, 여학생 47.69%, 교사는 남교사 51.85%, 여교사 40.48%, 학부모는 부 55.68%, 모 58.66%로 나타났다.

#### 5) 특기·적성 교육활동시 사용했던 자료

<표 23> 특기·적성 교육활동시 사용했던 자료 ( )%

| 구분 | 변 인 |       | 교과서      | 전문서적      | 유인물       | 기타        | 계          |                                        |
|----|-----|-------|----------|-----------|-----------|-----------|------------|----------------------------------------|
| 교사 | 성별  | 남     | 5(4.63)  | 41(37.96) | 28(25.93) | 34(31.48) | 108(100.0) | $\chi^2 = 2.059$<br>df=3<br>p=0.560    |
|    |     | 여     | 6(6.38)  | 34(36.17) | 31(32.98) | 23(24.47) | 94(100.0)  |                                        |
|    | 경력  | 10년미만 | 6(10.71) | 14(25.00) | 14(25.00) | 22(39.29) | 56(100.0)  | $\chi^2 = 10.944$<br>df=3<br>p=0.012 * |
|    |     | 10년이상 | 5(3.47)  | 60(41.67) | 45(31.25) | 34(23.61) | 144(100.0) |                                        |
|    | 거주지 | 시     | 9(7.26)  | 43(34.68) | 37(29.84) | 35(28.23) | 124(100.0) | $\chi^2 = 2.349$<br>df=3<br>p=0.503    |
|    |     | 읍·면   | 2(2.82)  | 30(42.25) | 20(28.17) | 19(26.76) | 71(100.0)  |                                        |

\*  $p < .05$

“특기·적성 교육활동시 주로 사용했던 자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교사들이 주로 사용했던 자료로는 전문서적, 유인물, 기타의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성별, 경력, 거주지 별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사가 많이 사용하는 자료로는 전문서적, 기타, 유인물, 교과서 등의 도서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교사의 경력( $\chi^2 = 10.944$ ,  $p < .05$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교사의 성별, 거주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그러나 여교사 36.17% 보다는 남교사 37.96%가 시거주지 교사 34.68%보다는 읍면 지역 교사 42.25%가 전문서적을 더 사용했고 10년 미만의 경력 교사는 39.29%가 기타를, 10년 이상의 경력 교사는 41.67%가 전문서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어떤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학생, 학부모, 교사 공히 특기·적성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부모의 부모관계( $\chi^2 = 11.897, p < .05$ ) 생활수준( $\chi^2 = 20.794, p < .05$ )에서는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의 성별, 거주지, 교사의 성별, 경력, 거주지, 학부모의 거주지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거주지에 따라 학부모는 부모 생활수준에 따라 특기 적성 활동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었고 학생들은 성별 거주지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학생만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거주 교사 46.35% 보다는 읍면지역의 교사 81.44%가 시거주 학부모 62.50% 보다는 읍면지역의 교사 64.12%가 희망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학생은 읍면지역의 학생 61.27%보다는 시거주 학생 64.45%이 희망 학생이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 24>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

( )%

| 구분   | 변인   |        | 희망학생       | 학원에 못 다니는 학생 | 선생님이 추천한 학생 | 전체학생      | 생활보호대상자 | 특기가 있는 학생만 | 계          |                                         |
|------|------|--------|------------|--------------|-------------|-----------|---------|------------|------------|-----------------------------------------|
| 학생   | 성별   | 남      | 98(61.25)  | 26(16.25)    | 0(0.00)     | 29(18.13) | 2(1.25) | 5(3.13)    | 160(100.0) | $\chi^2 = 5.538$<br>df=5<br>p=0.354     |
|      |      | 여      | 124(61.69) | 37(18.41)    | 3(1.49)     | 31(15.42) | 0(0.00) | 6(2.99)    | 201(100.0) |                                         |
|      | 거주지  | 시      | 125(63.45) | 26(13.20)    | 2(1.02)     | 38(19.29) | 1(0.51) | 5(2.54)    | 197(100.0) | $\chi^2 = 4.193$<br>df=5<br>p=0.522     |
|      |      | 읍·면    | 87(61.27)  | 29(20.42)    | 1(0.70)     | 20(14.08) | 1(0.70) | 4(2.82)    | 142(100.0) |                                         |
| 교사   | 성별   | 남      | 96(75.29)  | 8(6.30)      | 0(0.00)     | 19(14.96) | 0(0.00) | 4(3.15)    | 127(100.0) | $\chi^2 = 8.2897$<br>df=5<br>p=0.141    |
|      |      | 여      | 115(73.25) | 21(13.38)    | 1(0.64)     | 18(11.46) | 1(0.64) | 1(0.64)    | 157(100.0) |                                         |
|      | 경력   | 10년 미만 | 63(78.75)  | 4(5.00)      | 1(1.25)     | 12(15.00) | 0(0.00) | 0(0.00)    | 80(100.0)  | $\chi^2 = 8.277$<br>df=5<br>p=0.142     |
|      |      | 10년 이상 | 149(73.25) | 24(11.82)    | 0(0.00)     | 24(11.82) | 1(0.49) | 5(2.46)    | 203(100.0) |                                         |
| 학부모  | 거주지  | 시      | 127(46.35) | 18(6.57)     | 1(0.26)     | 29(10.58) | 1(0.36) | 1(0.36)    | 177(100.0) | $\chi^2 = 10.835$<br>df=5<br>p=0.055    |
|      |      | 읍·면    | 79(81.44)  | 7(7.22)      | 0(0.00)     | 7(7.22)   | 0(0.00) | 4(4.12)    | 97(100.0)  |                                         |
|      | 관계   | 부      | 45(53.57)  | 17(20.24)    | 0(0.00)     | 20(23.81) | 0(0.00) | 2(2.38)    | 84(100.0)  | $\chi^2 = 11.897$<br>df=5<br>p=0.036 *  |
|      |      | 모      | 117(69.23) | 19(11.24)    | 2(1.18)     | 30(17.75) | 1(0.59) | 0(0.00)    | 169(100.0) |                                         |
| 생활수준 | 거주지  | 시      | 85(62.50)  | 21(15.44)    | 0(0.00)     | 29(21.32) | 0(0.00) | 1(0.74)    | 136(100.0) | $\chi^2 = 4.616$<br>df=5<br>p=0.464     |
|      |      | 읍·면    | 84(64.12)  | 18(13.74)    | 2(1.53)     | 24(18.32) | 2(1.53) | 1(0.76)    | 131(100.0) |                                         |
|      | 생활수준 | 상      | 0(0.00)    | 3(100.0)     | 0(0.00)     | 0(0.00)   | 0(0.00) | 0(0.00)    | 3(100.0)   | $\chi^2 = 20.794$<br>df=10<br>p=0.023 * |
|      |      | 중      | 138(65.09) | 28(13.21)    | 1(0.47)     | 42(19.81) | 2(0.94) | 1(0.47)    | 212(100.0) |                                         |
|      |      | 하      | 32(60.38)  | 10(18.87)    | 1(1.89)     | 9(16.98)  | 0(0.00) | 1(1.89)    | 53(100.0)  |                                         |

\* p<.05

### 3.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問題點과 改善에 대한 認識

#### 1)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의 활성화 정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이 실현되는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특기 적성 활동 운영이 비교적 활성화되었다고



활성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생의 성별, 거주지, 교사의 성별, 경력, 학부모의 관계, 거주지, 생활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교사 거주지에 따라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활성화되는 면에서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읍면 거주 학생 30.94% 보다는 시 거주 학생 38.66%가 시 거주 부모 31.88% 보다는 읍면 거주 36.92%가 부모가 활성화 정도에 반응을 나타낸 반면 읍면 거주 교사 31.52% 보다는 시거주 교사 42.26%가 활성화 정도에 반응하였다.

<표 25> 특기·적성 활동 운영의 활성화 정도 ( )%

| 구분      | 변 인     |           | 크게<br>활성화 | 약간<br>활성화 | 보통        | 부진        | 전혀<br>부진 | 계          |                                       |
|---------|---------|-----------|-----------|-----------|-----------|-----------|----------|------------|---------------------------------------|
| 학생      | 성별      | 남         | 36(22.50) | 61(38.13) | 53(33.13) | 6(3.71)   | 4(2.50)  | 160(100.0) | $\chi^2 = 2.554$<br>df=4<br>p=0.635   |
|         |         | 여         | 44(22.45) | 66(33.67) | 78(39.80) | 4(2.04)   | 4(2.04)  | 196(100.0) |                                       |
|         | 거주<br>지 | 시         | 41(21.13) | 75(38.66) | 68(35.05) | 4(2.06)   | 6(3.09)  | 194(100.0) | $\chi^2 = 3.806$<br>df=4<br>p=0.433   |
|         |         | 읍.면       | 35(25.18) | 43(30.94) | 57(41.01) | 2(1.44)   | 2(1.44)  | 139(100.0) |                                       |
| 교사      | 성별      | 남         | 16(12.90) | 41(33.06) | 41(33.06) | 22(17.74) | 4(3.23)  | 124(100.0) | $\chi^2 = 2.864$<br>df=4<br>p=0.581   |
|         |         | 여         | 18(12.33) | 60(41.10) | 36(24.66) | 27(18.49) | 5(3.42)  | 146(100.0) |                                       |
|         | 경력      | 10년<br>미만 | 10(14.29) | 23(32.86) | 26(37.14) | 10(14.29) | 1(1.43)  | 70(100.0)  | $\chi^2 = 4.867$<br>df=4<br>p=0.301   |
|         |         | 10년<br>이상 | 24(12.06) | 78(39.20) | 51(25.63) | 38(19.10) | 8(4.02)  | 199(100.0) |                                       |
|         | 거주<br>지 | 시         | 25(14.88) | 71(42.26) | 45(26.79) | 24(14.29) | 3(1.79)  | 168(100.0) | $\chi^2 = 9.847$<br>df=4<br>p=0.043 * |
|         |         | 읍.면       | 8(8.70)   | 29(31.52) | 29(31.52) | 20(21.74) | 6(6.52)  | 92(100.0)  |                                       |
| 학부<br>모 | 관계      | 부         | 5(5.88)   | 33(38.82) | 34(40.00) | 10(11.76) | 3(3.53)  | 85(100.0)  | $\chi^2 = 2.852$<br>df=4<br>p=0.583   |
|         |         | 모         | 14(8.28)  | 54(31.95) | 70(41.42) | 28(16.57) | 3(1.78)  | 169(100.0) |                                       |
|         | 거주<br>지 | 시         | 14(10.14) | 44(31.88) | 63(45.65) | 15(10.87) | 2(1.45)  | 138(100.0) | $\chi^2 = 7.913$<br>df=4<br>p=0.095   |
|         |         | 읍.면       | 6(6.42)   | 48(36.92) | 48(36.92) | 24(18.46) | 4(3.08)  | 130(100.0) |                                       |
|         | 생활수준    | 상         | 0(0.00)   | 3(100.0)  | 0(0.00)   | 0(0.00)   | 0(0.00)  | 3(100.0)   | $\chi^2 = 6.259$<br>df=8<br>p=0.618   |
|         |         | 중하        | 16(7.55)  | 73(34.43) | 85(40.09) | 33(15.57) | 5(2.36)  | 212(100.0) |                                       |
|         |         |           | 4(7.55)   | 17(32.08) | 24(45.28) | 7(13.21)  | 1(1.89)  | 53(100.0)  |                                       |

\* p<.05



2) 현행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개선점

<표 26> 현행 특기·적성 활동의 개선점 ( )%

| 구분          | 변 인      |           | 많은<br>개선이<br>필요 | 조금개<br>선이<br>필요 | 개선의<br>필요성을<br>느낌 | 개선의필<br>요가<br>없음 | 계          |                                         |
|-------------|----------|-----------|-----------------|-----------------|-------------------|------------------|------------|-----------------------------------------|
| 학<br>생      | 성별       | 남         | 52(32.91)       | 69(43.67)       | 21(13.29)         | 16(12.13)        | 158(100.0) | $x^2 = 3.671$<br>df=3<br>p=0.299        |
|             |          | 여         | 66(33.17)       | 81(40.70)       | 39(19.60)         | 13(6.53)         | 199(100.0) |                                         |
|             | 거주지      | 시         | 62(32.12)       | 77(39.90)       | 35(18.13)         | 19(9.84)         | 193(100.0) | $x^2 = 3.472$<br>df=6<br>p=0.324        |
|             |          | 읍.면       | 48(34.04)       | 64(45.39)       | 22(15.60)         | 7(4.96)          | 141(100.0) |                                         |
| 교<br>사      | 성별       | 남         | 42(33.33)       | 56(44.44)       | 27(21.43)         | 1(0.79)          | 126(100.0) | $x^2 = 6.668$<br>df=3<br>p=0.083        |
|             |          | 여         | 42(26.58)       | 60(37.97)       | 51(32.28)         | 5(3.16)          | 158(100.0) |                                         |
|             | 경력       | 10년<br>미만 | 24(30.38)       | 24(30.38)       | 27(34.18)         | 4(5.06)          | 79(100.0)  | $x^2 = 8.895$<br>df=3<br>p=0.031 *      |
|             |          | 10년<br>이상 | 59(28.92)       | 91(44.61)       | 52(25.49)         | 2(0.98)          | 204(100.0) |                                         |
|             | 거주지      | 시         | 42(23.60)       | 76(42.70)       | 55(30.90)         | 5(2.81)          | 178(100.0) | $x^2 = 9.344$<br>7<br>df=3<br>p=0.025 * |
|             |          | 읍.면       | 38(39.58)       | 38(39.58)       | 19(19.79)         | 1(1.04)          | 96(100.0)  |                                         |
| 학<br>부<br>모 | 관계       | 부         | 15(17.44)       | 35(40.70)       | 28(32.56)         | 8(9.30)          | 86(100.0)  | $x^2 = 5.479$<br>df=3<br>p=0.140        |
|             |          | 모         | 41(25.00)       | 53(32.32)       | 63(38.41)         | 7(4.27)          | 164(100.0) |                                         |
|             | 거주지      | 시         | 26(20.00)       | 53(40.77)       | 44(33.85)         | 7(5.38)          | 130(100.0) | $x^2 = 3.014$<br>df=3<br>p=0.388        |
|             |          | 읍.면       | 34(25.56)       | 41(30.83)       | 50(37.59)         | 8(6.02)          | 133(100.0) |                                         |
|             | 생활수<br>준 | 상         | 0(0.00)         | 1(33.33)        | 2(66.67)          | 0(0.00)          | 3(100.0)   | $x^2 = 5.896$<br>df=6<br>p=0.435        |
|             |          | 중         | 48(23.08)       | 76(36.54)       | 75(36.06)         | 9(4.33)          | 208(100.0) |                                         |
|             |          | 하         | 13(24.53)       | 18(33.96)       | 16(30.19)         | 6(11.32)         | 53(100.0)  |                                         |

\* p<.05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현행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교사들의 경력( $\chi^2 = 8.895$ ,  $p < .05$ ) 거주지( $\chi^2 = 9.3447$ ,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교사의 성별, 학생들의 성별, 거주지, 학부모의 부모관계, 거주지, 생활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경력, 거주지에 따라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개선점의 차이가 보였으나 학생 학부모는 배경 변인에 관계없이 모두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 반면 시거주 학생 32.12%, 시 거주 교사 20.00%, 읍면 거주 학부모 25.56%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3)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개선의 필요성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학생들은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가장 많이 원했고 교사들은 강사선택의 문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부모는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육내용의 수준 향상에 비중을 두고 개선을 원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학생의 거주지( $\chi^2 = 12.015$ ,  $p < .05$ ), 교사의 거주지( $\chi^2 = 13.230$ ,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생의 성별, 교사의 성별, 경력, 학부모의 부모관계, 거주지, 생활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원하는 부서를 선택하는 폭이 좁아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배치되는 경험에 많아 교육내용의 다양화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거주지에 따라 읍면 거주 보다는 시 거주 학생 47.40%, 교사 25.17%, 학부모 40.52%가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원하고 있다.



<표 27>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개선의 필요성

( )%

| 구분  | 변인   |       | 교육내용<br>의<br>다양화 | 강사선택<br>문제 | 교육내용<br>의<br>수준<br>향상 | 교육활동<br>비<br>문제 | 교육활동<br>장소의<br>다양화 | 계          |                                        |
|-----|------|-------|------------------|------------|-----------------------|-----------------|--------------------|------------|----------------------------------------|
| 학생  | 성별   | 남     | 57(39.04)        | 22(15.07)  | 34(23.29)             | 19(13.01)       | 14(9.59)           | 146(100.0) | $\chi^2 = 1.105$<br>df=4<br>p=0.894    |
|     |      | 여     | 74(40.44)        | 29(15.85)  | 42(22.95)             | 26(14.21)       | 12(6.56)           | 183(100.0) |                                        |
|     | 거주지  | 시     | 82(47.40)        | 20(11.56)  | 42(24.28)             | 21(12.14)       | 8(4.62)            | 173(100.0) | $\chi^2 = 12.015$<br>df=4<br>p=0.017 * |
|     |      | 읍·면   | 42(31.34)        | 25(18.66)  | 31(23.13)             | 22(16.42)       | 14(10.45)          | 134(100.0) |                                        |
| 교사  | 성별   | 남     | 33(28.45)        | 37(31.90)  | 23(19.83)             | 7(6.03)         | 16(13.79)          | 116(100.0) | $\chi^2 = 5.294$<br>df=4<br>p=0.258    |
|     |      | 여     | 25(19.84)        | 50(39.68)  | 18(14.29)             | 8(6.35)         | 25(19.84)          | 126(100.0) |                                        |
|     | 경력   | 10년미만 | 15(22.73)        | 20(30.30)  | 11(16.67)             | 7(10.61)        | 13(19.70)          | 66(100.0)  | $\chi^2 = 3.882$<br>df=4<br>p=0.422    |
|     |      | 10년이상 | 42(23.86)        | 66(37.50)  | 31(17.61)             | 8(4.55)         | 29(16.48)          | 176(100.0) |                                        |
| 학부모 | 관계   | 부     | 24(33.33)        | 12(16.67)  | 22(30.56)             | 10(13.89)       | 4(5.56)            | 72(100.0)  | $\chi^2 = 3.292$<br>df=4<br>p=0.510    |
|     |      | 모     | 62(43.97)        | 17(12.06)  | 36(25.53)             | 15(10.64)       | 11(7.80)           | 141(100.0) |                                        |
|     | 거주지  | 시     | 47(40.52)        | 14(12.07)  | 33(28.45)             | 14(12.07)       | 8(6.90)            | 116(100.0) | $\chi^2 = 1.023$<br>df=4<br>p=0.906    |
|     |      | 읍·면   | 44(40.00)        | 18(16.36)  | 30(27.27)             | 12(10.91)       | 6(5.45)            | 110(100.0) |                                        |
|     | 생활수준 | 상     | 0(0.00)          | 1(33.33)   | 1(33.33)              | 1(33.33)        | 0(0.00)            | 3(100.0)   | $\chi^2 = 5.310$<br>df=8<br>p=0.724    |
|     |      | 중     | 77(42.78)        | 23(12.78)  | 50(27.78)             | 20(11.11)       | 10(5.56)           | 180(100.0) |                                        |
|     |      | 하     | 15(33.33)        | 6(13.33)   | 14(31.11)             | 6(13.33)        | 4(8.89)            | 45(100.0)  |                                        |

\* p<.05



#### 4)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했을 때 어려웠던 점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학생들은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시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에 따라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38.29%, 여학생이 35.22%였으며 거주지별로 시지역이 35.91% 읍·면지역이 31.8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려웠던 점은 시설과 자료 부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비교적 특기·적성 교육활동 강의 내용이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과 교육활동비 부담은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읍·면지역보다는 시지역이 높았다. 시간·시설과 자료 부족, 교육활동비 부담은 읍·면지역 35.22% 보다 시지역 38.29%가 부담이 큰 것으로 보아 시지역은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강사로 초빙하여 활동비를 내는 반면 읍·면지역은 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많아 교사들이 무료나 저렴하게 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8> 특기·적성 활동 참여했을 때 어려웠던 점 ( )%

| 구분 | 변인  |     | 시간<br>부족  | 내용이<br>도움이<br>안됨 | 시설과<br>자료부족 | 교육활동<br>비 부담 | 기타        | 계          |                                     |
|----|-----|-----|-----------|------------------|-------------|--------------|-----------|------------|-------------------------------------|
| 학생 | 성별  | 남   | 43(38.29) | 12(7.89)         | 55(36.18)   | 75(9.87)     | 27(17.76) | 152(100.0) | $\chi^2 = 8.918$<br>df=4<br>p=0.063 |
|    |     | 여   | 67(35.22) | 17(9.19)         | 40(21.62)   | 20(10.81)    | 41(22.16) | 185(100.0) |                                     |
|    | 거주지 | 시   | 65(35.91) | 15(8.29)         | 41(22.65)   | 24(13.26)    | 36(19.89) | 181(100.0) | $\chi^2 = 7.066$<br>df=4<br>p=0.132 |
|    |     | 읍·면 | 43(31.85) | 13(9.63)         | 45(33.33)   | 9(6.67)      | 25(18.52) | 135(100.0) |                                     |



#### 4. 特技・適性 教育活動에 대한 興味와 欲求

##### 1) 특기・적성 교육활동 내용의 흥미만족도

<표 29>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만족도 ( )%

| 구분     | 변 인 |     | 예         | 보통        | 아니오       | 계          |                                       |
|--------|-----|-----|-----------|-----------|-----------|------------|---------------------------------------|
| 학<br>생 | 성별  | 남   | 63(40.13) | 73(46.50) | 21(13.38) | 157(100.0) | $\chi^2 = 5.332$<br>df=2<br>p=0.070   |
|        |     | 여   | 93(48.95) | 84(44.21) | 13(6.84)  | 190(100.0) |                                       |
|        | 거주지 | 시   | 94(49.47) | 82(43.16) | 14(7.37)  | 190(100.0) | $\chi^2 = 5.280$<br>df=2<br>p=0.004 * |
|        |     | 읍.면 | 52(38.31) | 64(47.06) | 18(13.43) | 134(100.0) |                                       |

\* p<.05

“특기・적성 교육활동 내용이 재미있고, 만족스러웠습니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학생들은 비교적 특기 적성 교육 활동 내용의 흥미 만족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거주지( $\chi^2 = 5.280$ ,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들의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40.13% 보다는 여학생 48.95%가 읍・면지역의 학생 38.31% 보다는 시지역 학생 49.47%가 흥미 만족도가 높았다.



## IV. 要約, 結論 및 提言

본 연구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 실시에 따른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의 문헌을 고찰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하고자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대한 요약 결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要約

첫째,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배경 변인에 관계없이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참여한 부서는 컴퓨터, 영어 순으로 나타났고, 참여 장소로는 학생, 교사 모두 특별실 운동장보다는 일반 교실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별, 거주지, 교사의 성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성별, 학부모의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배경 변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 강사 선택은 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가장 적절하다고 나타났고, 교사의 성별, 경력, 학부모의 부모관계,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지도자로는 전문 강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을 선호하였으며 학생의 거주지, 교사의 성별, 학부모의 생활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가장 적절한 주당 시간 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2-3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생들은 주당 1시간 교사와 학부모는 주당 4-5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거주지, 학부모의 부모관계,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교사, 학부모 모두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교사의 거주지, 학



부모의 거주지,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활동에 대한 경비 부담에서 교사는 수익자 부담을 학부모는 수익자와 국가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학부모의 거주지,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교육 내용에서 가정 선호하는 분야에서 남학생은 태권도 등과 같은 운동분야 여학생은 피아노 미술 등 기능 발전 분야를 선호하였고, 교사, 학부모는 서예, 바둑 등 취미분야를 선호하였으며 학생의 성별, 거주지, 교사의 성별,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설학원에서의 교육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원 내용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였고 교사의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섯째, 교사가 특기·적성 교육활동시 사용했던 자료는 전문서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인물 기타 교과서 순이었고 교사의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특기·적성 교육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실시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학부모의 부모관계,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곱째, 학교 현장에서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비교적 활성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별, 거주지, 교사의 성별, 경력, 학부모의 관계, 거주지, 생활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거주지에 따라 활성화정도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활성화되는 면에서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덟째, 현행 특기·적성 교육 활동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개선점 분야에서 학생은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가장 많이 개선될 필요를 느꼈으며, 교사는 강사선택의 문제, 학부모는 교육 내용의 수준 향상에 좀 더 나은 개선을 원했으며 학생 교사의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의 경력,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홉째, 학생들은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시간부족을 들었고 시설, 자료 부족, 교육 활동비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 지역 거주 학생보다는 시 거주 학생이 시간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시설과 자료 부족, 교육활동비 부담은 큰 것으로 보아 시지역은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강사로 초빙하여 활동비를 내는 반면 읍·면지역은 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많아 교사들이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열째, 학생들은 현재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 내용의 흥미 만족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흥미·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結 論

본 연구 자료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소질·적성 계발에 많은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부서로는 컴퓨터, 영어로 나타났으며 강사로는 전문강사를 선호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컴퓨터, 영어 등 학생이 선호하는 분야를 집중 운영하는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내용 인식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경비 부담 대상자에 대한 견해에서 교사와 학부모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가에서도 특기·적성 교육활동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도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부모에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내용을 홍보하여 특기·적성 교육활동 수요자인 학생들이 희망하는 분야를 수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동 관심 내용을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넷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개선에 대한 인식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비교적 활성화되었다고 하였으나 개선될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은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사는 강사 선택, 학부모는 교육내용 수준을 들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강사 선택 방법의 강구, 교육내용의 다양화와 수준 향상에 심도 깊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흥미 만족도에서 학생들은 대단히 만족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내용을 보충·심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상 학생의 성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내용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 차별화 시켜야 한다.



### 3. 提言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학원 수준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성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셋째, 사교육비 절감에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양질의 특기·적성 교육활동 강사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과도한 학급당 인원수와 세분화된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과감하게 통합·개편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공은배·천세영, “한국의 교육비 수준” 서울 : 한국 교육개발원, 1990.
- 교원연수자료,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서울: 서울시 교육청, 1996.
- 교육개혁위원회,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Ⅳ)”. 1997.
- 교육부,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제35호, 1994.
-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 홍보 자료집”. 1996.
-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국 홍보 자료집”. 1997.
- 김명례,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관리자의 관심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김용성, “사교육비 지출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김정래, “과외해소 방안은 학교안에 있다.”, 새교육 ; 한국교육신문사, 1997.7.
- 김형철·공은배, “교육경제와 재정”, 서울 : 한국교육 개발원, 1988.
- 김형출, “초등과외과외의 현황과 개선방안”, 새교육 ; 한국교육신문사, 1997.7.
- 대우경제연구소, “제3차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 1996.
- 동아일보(6면), (1997.5.19)
- 박정수, “한국 사교육비의 확장과 교육기회의 형평”, 과외와 사교육비 : 한국적상황분석과 대응전략, 97년도 춘계학술대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박향아, “일본의 방과후 프로그램(학동보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제10권), 1996.
- 서울시 남부교육청, “방과후 교육활동 강화 방안, 1997.
- 서울시 남부교육청, “방과후 교육활동 강화 방안”, 1995. 5.
- 손재봉, “국민학생들의 학원 수강 실태와 그것에 관련된 제 변인 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송미섭,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송은섭·나동환,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론”, 서울 : 형설 출판사, 1994.
- 윤정일 외, “한국의 교육 정책(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1992.
- 윤철경, “초·중등교육 사부담 교육비의 변화추이와 변화 요인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이 옥, “탁아 연구”, 양서원, 1995.
- 이 옥,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의 방향”, 삼성복지재단 어린이 개발 센터, 1994.
- 이춘희, “국민학교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이현준,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 인천부개 서초등학교, “지원협의회 구성·활용을 통한 상설 클럽활동의 활성화 방안”, 특별활동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1996.
- 임연기,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정책논단」, 여의도연구소, 1995.12.
- 정미리, “독일의 방과후 프로그램(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통권 103호), 1996
- 정민자·박초아·이진숙, “방과후 아동지도”, 양서원, 1997.
- 정소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실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책연구 제87집, “교육개혁의 종합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7.12
- 조선일보, 1997.5.12, 6면.



- 주영란, “국민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경향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중앙일보, 중앙일보 사설, 1998.7, 2면.
- 최승택,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교육 개혁의 추진”.1997.
- 한국여성개발원, 1994.11.
- 한국초등교육협회, 한국초등교육 제18호, 서울 : 한국초등교육협의회, 1997.
- 허경철, “과열과외의 비교육적 현상과 학교교육의 정상화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망국과외 해소방안 모색, 토론자료,1997.4.30.
- 홍기선,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外國文獻

- P.K. Baden, A. Genser, J. A. Levine, M. Selingson(1982), School-Age child cwe, (London: Auburn House Publisshing company)
- Perscott, Elizsbeth, and Cynthia Millich(1974), School's out! Group Day care to the School-Age child, Pasadena, CA:Pacific Oaks College
- Seligson, M. Genser, A. Gannet. E. & Gray, W. (1983). school-age child care: A policy report.



## **ABSTRACT**

### **A Study on the Operational Reality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and Its Improvement**

Park, sung-sik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make a comprehensive diagnosis of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nd probe its improvement scheme.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study questions were set :

First, how do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perceive the purpose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and the criterion for choice of the subject to take lectures in?

Second, how do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perceive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for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and its content.



Third, how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perceive the problem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and the improvement of its program.

Fourth, does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satisfy students' interests and need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

All of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perceived that the activity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would bring much improvement to the development of specialty and aptitude. Students were found to attend computer and English classes as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in which they took lectures. Seeing that they had a preference for professional instructors as instructor,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scheme for intensive operation of the field which students prefer such as the computer, English and the like by the invitation of professional instructors in operating the specialty/aptitude education program.

Second, all of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showe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reduced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and an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of education in relation to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view of those subjects on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government should lend



financial support to the activity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to some extent after accommodating parents' opinions.

Third, seeing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reference for the content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between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it is desirable that students, consumers of the specialty/aptitude education program, should be allowed to take lectures in the fields they hope through the publicity of the content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reasonable adjustment for the content of common interests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Fourth, respondents said that the specialty/aptitude education program currently in operation has been comparatively activated in the survey research into the improvement of the specialty/aptitude education program. As for the field to be improved, students pointed out the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teachers pointed out the choice of instructors, and parents pointed out the level of educational contents. Accordingly, in-depth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ider the reasonable way to select instructors, diversify educational contents and improve their level.

Fifth, students felt very satisfied wi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program.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stitutional



measure to supplement and deepen the contents of the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program currently in ope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and differentiate the content and program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the gender of students, local specificity and the like.



<附錄>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관한 질문지(학생용)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현재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1999년 3 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박 성 식

1. 기초조사 (표기 : V)

- (1) 성 별 : \_\_① 남 \_\_② 여  
(2) 주 거 지 : \_\_① 시지역 \_\_② 읍, 면지역

2. 설문조사

- (1) 전에 특기·적성(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했습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오
- (2)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했었다면 어떤 부서였습니까?  
( )부
- (3)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소질과 적성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많이 도움이 되었다. \_\_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_\_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_\_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 (4) 앞으로도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



게 참여하겠습니까?

- \_\_① 적극 참여한다. \_\_② 상황을 보며 참여한다.  
\_\_③ 선생님이 권유하시면 참여한다. \_\_④ 부모님이 원하시면 참여한다.  
\_\_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5)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_\_① 일반 교실 \_\_② 특별실(음악실, 컴퓨터실, 도서실)  
\_\_③ 운동장 \_\_④ 기타

(6)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내용에는 어떤 분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영어 등 언어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  
\_\_② 수학, 국어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_\_③ 서예, 바둑 등 취미나 정서에 도움이 되는 것  
\_\_④ 태권도 등 운동에 관한 것  
\_\_⑤ 피아노, 미술 등 기능발전에 관한 것  
\_\_⑥ 기타( )

(7)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분야 선택 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선생님 \_\_② 나 \_\_③ 부모 \_\_④ 부모와 나  
\_\_⑤ 선생님과 나 \_\_⑥ 선생님과 부모

(8)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담당하여 지도했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 \_\_① 학교 선생님 \_\_② 학부모 \_\_③ 전문 강사 \_\_④ 지역 인사

(9)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설 학원에서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수준이 매우 높다. \_\_② 수준이 조금 높다.  
\_\_③ 비슷하다 \_\_④ 수준이 조금 낮다.  
\_\_⑤ 수준이 매우 낮다.



(10)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주당 시간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십니까?

- ☐① 1주일에 1시간                      ☐② 1주일에 2-3시간  
☐③ 1주일에 4-5시간                      ☐④ 1주일에 6-7시간  
☐⑤ 1주일에 8시간 이상

(11) 학교에서 실시되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이 실현되는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② 약간 활성화되고 있다.  
☐③ 보통 수준이다.              ☐④ 활성화가 부진하다.  
☐⑤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12)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어떤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희망학생                      ☐②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  
☐③ 선생님이 추천한 학생      ☐④ 전체 학생  
☐⑤ 생활보호대상자만          ☐⑥ 특기가 있는 학생만

(13)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②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③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      ☐④ 개선할 필요가 없다.

(14) (13)번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내용의 다양화              ☐② 강사 선택 문제  
☐③ 교육내용의 수준 향상          ☐④ 교육 활동비 문제  
☐⑤ 교육활동 장소의 다양화

(15)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시간이 부족했다.              ☐② 내용에 도움이 안됐다.  
☐③ 시설과 자료가 부족하다.      ☐④ 특기·적성 교육활동비가 부담스러웠다.  
☐⑤ 기타

(16) 특기·적성 교육활동 내용이 재미있고, 만족스러웠습니까?

- ☐① 예      ☐② 보통      ☐③ 아니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관한 질문지(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현재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실태를 알아보  
고자 하오니 선생님의 의견을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  
됨을 약속드리며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  
록 하겠습니다.

1999년 3 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박 성 식 올림

### 1. 기초조사 (표기 : V)

- (1) 성     별 :   \_\_① 남교사       \_\_② 여교사  
(2) 교직경력 :   \_\_① 10년 미만   \_\_② 10년 이상  
(3) 주   거   지 :   \_\_① 시지역       \_\_② 읍, 면지역

### 2. 설문조사

- (1) 특기·적성(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오  
(2)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_\_① 학교의 일반 교실   \_\_② 특별실(음악실, 컴퓨터실, 도서실)  
\_\_③ 운동장               \_\_④기타



- (3) 특기·적성 교육활동시 주로 사용했던 자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_\_① 교과서                      \_\_② 전문서적  
 \_\_③ 유인물                      \_\_④ 기타
- (4)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많이 도움이 되었다.                      \_\_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_\_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_\_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 (5)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내용에는 어떤 분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영어 등 언어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  
 \_\_② 수학, 국어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_\_③ 서예, 바둑 등 취미나 정서에 도움이 되는 것  
 \_\_④ 태권도 등 운동에 관한 것  
 \_\_⑤ 피아노, 미술 등 기능발전에 관한 것  
 \_\_⑥ 기타(                      )
- (6)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분야 선택 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선생님                      \_\_② 학습아동                      \_\_③ 학부모                      \_\_④ 학부모와 자녀  
 \_\_⑤ 선생님과 아동                      \_\_⑥ 선생님과 학부모
- (7)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강의(지도)는 누가 하는 게 좋겠습니까?  
 \_\_① 학교 선생님                      \_\_② 학부모                      \_\_③ 전문 강사                      \_\_④ 지역 인사
- (8)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설 학원에서의 내용과 비교 해 볼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① 수준이 매우 높다.                      \_\_② 수준이 조금 높다.  
 \_\_③ 비슷하다                      \_\_④ 수준이 조금 낮다.  
 \_\_⑤ 수준이 매우 낮다.
- (9)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 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_\_① 수익자가 부담한다.                      \_\_② 국가가 부담한다.  
 \_\_③ 수익자와 국가가 반씩 부담한다.



(10)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주당 시간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십니까?

- ☐ ① 1주일에 1시간                      ☐ ② 1주일에 2-3시간  
☐ ③ 1주일에 4-5시간                      ☐ ④ 1주일에 6-7시간  
☐ ⑤ 1주일에 8시간 이상

(11) 자녀 학교에서 실시되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이 실현되는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 ② 약간 활성화되고 있다.  
☐ ③ 보통 수준                      ☐ ④ 활성화가 부진하다.  
☐ ⑤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12)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어떤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희망학생                      ☐ ②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  
☐ ③ 선생님이 추천한 학생    ☐ ④ 전체 학생  
☐ ⑤ 생활보호대상자만                      ☐ ⑥ 특기가 있는 학생만

(13)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 ②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 ③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                      ☐ ④ 개선할 필요가 없다.

(14) (13)번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교육내용의 다양화                      ☐ ② 강사 선택 문제  
☐ ③ 교육내용의 수준 향상                      ☐ ④ 교육 활동비 문제  
☐ ⑤ 교육활동 장소의 다양화

<감사합니다.>



##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관한 질문지(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현재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실태를 알아보  
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의견을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  
됨을 약속드리며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3 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박 성 식 올림

### 1. 기초조사 (표기 : V)

- (1) 자녀와의 관계 : \_\_① 부 \_\_② 모  
(2) 주 거 지 : \_\_① 시지역 \_\_② 읍, 면지역  
(3) 생활수준 : \_\_① 상 \_\_② 중 \_\_③ 하

### 2. 설문조사

- (1) 귀 자녀가 특기·적성(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오
- (2)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자녀의 소질과 적성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많이 도움이 되었다. \_\_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_\_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_\_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 (3) 앞으로도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시한다면 자녀들을 참여 시키겠습니까?  
 \_\_① 적극 참여한다. \_\_② 상황을 보며 참여한다.  
 \_\_③ 선생님이 권유하면 참여한다. \_\_④ 아이가 원하면 참여시킨다.
- (4)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많이 도움이 되었다. \_\_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_\_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_\_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 (5)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내용에는 어떤 분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영어 등 언어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  
 \_\_② 수학, 국어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_\_③ 서예, 바둑 등 취미나 정서에 도움이 되는 것  
 \_\_④ 태권도 등 운동에 관한 것  
 \_\_⑤ 피아노, 미술 등 기능발전에 관한 것  
 \_\_⑥ 기타( )
- (6)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분야 선택 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선생님 \_\_② 학습아동 \_\_③ 학부모 \_\_④ 학부모와 자녀  
 \_\_⑤ 선생님과 아동 \_\_⑥ 선생님과 학부모
- (7)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강의는 누가 하는게 좋겠습니까?  
 \_\_① 학교 선생님 \_\_② 학부모 \_\_③ 전문 강사 \_\_④ 지역 인사
- (8)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설 학원에서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① 수준이 매우 높다. \_\_② 수준이 조금 높다.  
 \_\_③ 비슷하다. \_\_④ 수준이 조금 낮다.  
 \_\_⑤ 수준이 매우 낮다.
- (9)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 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_\_① 수익자가 부담한다. \_\_② 국가가 부담한다.  
 \_\_③ 수익자와 국가가 반씩 부담한다.



(10)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주당 시간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십니까?

- ☐① 1주일에 1시간                      ☐② 1주일에 2-3시간  
☐③ 1주일에 4-5시간                      ☐④ 1주일에 6-7시간  
☐⑤ 1주일에 8시간 이상

(11) 자녀 학교에서 실시되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이 실현되는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② 약간 활성화되고 있다.  
☐③ 보통 수준                      ☐④ 활성화가 부진하다.  
☐⑤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12)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어떤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희망학생                      ☐②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  
☐③ 선생님이 추천한 학생    ☐④ 전체 학생  
☐⑤ 생활보호대상자만                      ☐⑥ 특기가 있는 학생만

(13)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②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③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                      ☐④ 개선할 필요가 없다.

(14) (13)번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내용의 다양화                      ☐② 강사 선택 문제  
☐③ 교육내용의 수준 향상                      ☐④ 교육 활동비 문제  
☐⑤ 교육활동 장소의 다양화

<감사합니다.>